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문법화 정도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어학전공

이 용 준

문법화 정도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

지도 교수 구 명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어학전공
이 용 준

이용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문법화 정도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

한 언어 기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 의미를 잃으면서 점차 문법적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문법화라 일컫는다. 이 현상은 독일어 부치사에서도 보이는데, 그 예로는 공간을 표현하던 전치사가 동사의 전치사적 목적어를 유도하는 순전히 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포함하여 독일어의 다양한 부치사들에서 보이는 문법화 현상의 양상과 그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이들을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법화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는 기호가 가지는 문법성을 알아 봄으로써 파악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문법성의 측정을 위해서 Christian Lehmann이 제시한 문법화의 6가지 매개변항을 사용하였다. 기호의 문법화는 다양한 양상을 띠며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기제들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제들로는 선행연구들에서 여러가지가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는 그 중 대표적인 인지적 기제라 할 수 있는 재분석, 유추, 그리고 은유와 환유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어 부치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문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형태-조어론적 특징을 기준으로 기본 부치사, 파생 부치사, 합성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 나누었다. 기본 부치사는 전치사적 목적어를 이끄는 전치사(PO-P)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파생 부치사와 합성 부치사는 각각 유래한 품사와 분리 가능 유무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문법성이 가장 낮은 단일한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파생 부치사와 합성 부치사의 대표적 부치사들은 DWDS 코퍼스에서 검색된 빈도수에 근거하여 *wegen, während, gegenüber, anstatt, aufgrund*를 선정하였다.

먼저 독일어 부치사의 각 유형에 어떤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용했는지 알아보았다. 기본 부치사의 경우 본래의 공간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나아가 동사와의 의미적 접점을 가져 전치사적 목적어를

이끌기도 한다는 점에서 은유와 환유가 일어났다. 파생 부치사와 합성 부치사의 경우 본래 쓰였던 자유결합에서 재분석을 거쳐 현재와 같은 부치사의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형태와 의미 측면에서의 유추도 일어났다.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경우 본래의 의미가 다른 개념 영역과의 접점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전치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환유가 중심적으로 일어났고, 유추 또한 작용했다.

이후 독일어 부치사들이 거친 문법화의 정도를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기호가 문법화할수록 기호의 무게와 유동성은 감소하고 응집성은 증가하는데, 분석 결과 독일어 부치사들이 보인 변화는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매개변항 값의 변화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다만 기호의 구조적 범위는 문법화의 과정에서 보통 축소되지만, PO-P와 *gegenüber*를 제외하면 오히려 확대되었기 때문에 독일어 부치사 유형들의 문법화 정도를 비교할 때에는 논외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일어 부치사들이 가지는 문법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PO-P는 문법화 과정에서 매개변항 값이 변하는 과정들 모두를 따르면서 문법화 정도가 가장 컸다. 파생 부치사 중 명사에서 파생된 *wegen*은 계열성 측면에서 더 높은 문법성을 가져 다른 하위유형들과 차이를 보였다. 합성 부치사 중 분리가 불가한 *anstatt*는 온전성과 결합성 측면에서 분리 가능한 *aufgrund*보다 비교적 높은 문법성을 보였다.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경우 보족어의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매개변항의 변화를 따르지 않아 문법성이 가장 낮았다. 종합해 보면, 문법화의 매개변항에 의거하여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성을 판단한 결과, 기본 부치사, 파생 부치사, 합성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 순으로 문법화를 이루었고, 파생 부치사와 합성 부치사의 하위유형 간에도 문법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문법화, 문법화 정도, 문법화의 매개변항, 문법화의 기제, 부치사의 분류, 전치사적 목적어

학 번 : 2021-20802

목 차

1. 서 론 1

2. 문법화론 5

2.1 문법화의 매개변항 7

2.1.1 온전성 9

2.1.2 구조적 범위 11

2.1.3 계열성 12

2.1.4 결합성 13

2.1.5 선택가능성 16

2.1.6 위치자유도 17

2.2 문법화의 기제 19

2.2.1 재분석 19

2.2.2 유추 20

2.2.3 은유 및 환유 22

3.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 25

3.1 기존의 분류 25

3.1.1 Wöllstein/Dudenredaktion(2016) 25

3.1.1.1 단순 부치사 25

3.1.1.2 복합 부치사 26

3.1.1.3 전치사적 단어결합 27

3.1.2 Helbig/Buscha(2001) 28

3.1.2.1 일차적 부치사 28

3.1.2.2 이차적 부치사 28

3.1.3 Lindqvist(1994) 29

3.2 문법화 분석 대상으로서의 부치사 분류 32

4.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37
4.1 기본 부치사.....37
4.2 파생 부치사.....42
4.2.1 명사 파생 부치사.....45
4.2.2 동사 파생 부치사.....47
4.2.3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48
4.3 합성 부치사.....51
4.3.1 협착 합성 부치사.....53
4.3.2 결합적 합성 부치사.....54
4.4 전치사적 단어결합.....56
4.5 부치사의 종합적 문법화 정도.....59
4.5.1 기호의 무게의 변화.....59
4.5.2 기호의 응집성의 변화.....61
4.5.3 기호의 유동성의 변화.....63

5. 결론.....66

참고문헌.....69

Zusammenfassung.....73

1. 서론

현대 독일어에서 부치사가 가지는 지위는 그 쓰임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매우 중요하다. 부치사(Adposition)란 여러 문법서에서 전치사(Präposition)[1]로 소개되는 품사와 동일하며, 관계하는 명사의 앞에 오는 전치사와 뒤에 위치하는 후치사(Postposi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Dudenredaktion(2020: 51)에 따르면 독일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50개 목록에 부치사 14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고빈도 단어 100개가 Dudenkorpus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모든 단어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현상은 부치사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어 화자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부치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치사의 관계 표현 기능에 중점을 두어 부치사는 관계어(Verhältniswort)로도 불린다.

그런데 언급한 독일어 50개 고빈도 단어 목록 중 부치사들 중 가장 많이 쓰이는 *in*의 경우, 이 단어가 명사의 격을 지배하는 부치사로만 쓰였다면 순위는 낮아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in*은 어떻게 사용되었기에 2위라는 높은 순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본고의 독자층인 독일어 학습자들이 배운 것처럼, *in*은 아래 (1)의 예시들처럼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져 다양한 표현에 사용된다.

(1) a. Der Schlüssel ist *in der Tasche*.
b. *In diesem Sommer* hat es viel geregnet.
c. Er war *in Schwierigkeiten*.
d. Er verliebte sich *in sie*.

위 예문들을 살펴보면, *in*은 (1a)에서는 '내부'라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1b)에서는 시간의 의미를 전달한다. (1c)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처지를 나타내는 부치사로서 *in*이 존재한다. 마지막 (1d)에서 *in*은 의미가 없으며, 동사 *sich verlieben*의 목적어를 이끄는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1] IDS가 제공하는 독일어 문법에 대한 정보 포탈인 Grammis에서는 품사로서의 전치사는 광의의 전치사(Präpostionen im weiteren Sinn)로, 그 하위유형 중 하나로서의 전치사는 협의의 전치사(Präpositionen im engeren Sinn)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래 일반적인 구(Phrase)에 불과했던 표현이 특정 과정을 거쳐 점차 부치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신에'라는 뜻을 가지는 부치사 *statt*는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중고지독일어(Mittelhochdeutsch)에서는 자유결합(freie Verbindung)으로 쓰이다가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anstatt*, 그리고 더 나아가 *an*이 생략된 *statt*로 변모하였다.

(2) a. sante, als si in bat / sîn selbes tohter *an ir stat*. (Iw. 5776)[2]
b. *Anstatt* eines Helms trug er nur eine Mütze.[3]
c. *Statt* des Geldes gab sie ihm ihren Schmuck.

이처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문법적인 특성을 얻음으로써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갖는 과정을 문법화(Grammatikalisierung)라 하는데, 이는 비단 부치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한 언어를 이루는 기호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독일어의 다양한 부치사들이 가지는 문법화 정도를 연구하여 이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in, wegen, mittels, zufolge* 등 한 단어로 이뤄진 부치사 뿐 아니라, *mit Hilfe*나 *in Bezug auf* 등 구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부치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들을 포함한다. 특히 독일어 기본 부치사[4]는 *auf den Bus warten*에서의 *auf den Bus*처럼 특정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역할도 하는데, 이를 전치사적 목적어(Präpositionalobjekte; PO)라 하며, 이는 기본 부치사가 고도로 문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일어 부치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뤄져왔고[5] 부치사와 문법화를 연관지어 연구한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법화 현상을 논의하면서 부치사를 그 예시로 들거나 구체적인 개별 부치사에서 일어나는 문법화 현상을 다루는 데 그쳤다. Christian Lehmann은 저서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2015)에서 부치사 *trotz*, *statt*, *kraft*의 예시를 들어 부치사구를 이끄는 부치사가 생략됨으로써 더 짧은 형태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2] Iw. = Iwein. Eine Erzählung von Hartmann von Aue. Hg. von Georg Friedrich Benecke und Karl Lachmann. Neu bearb. von Ludwig Wolff. 7. Ausg., Bd. 1: Text, Berlin 1968
[3] www.woerterbuchnetz.de/DWB/anstatt
[4] 3.2장 참조.
[5] Schröder(1986), Lindqvist(1994), Eisenberg(2013) 등

Lehmann(1991)은 현대 독일어의 문법화 현상을 다루면서 다양한 복합 부치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언급하였다.

Lehmann/Stolz(1992)는 독일어 부치사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관찰하여 지배소(Regens)와 피지배소(Rektum)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Relationalität)을 기반으로 독일어 부치사들이 형성됨을 보였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문법화 현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재분석과 유추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Di Meola(2000)는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현상을 코퍼스를 활용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형태-어원론적(morphologisch-etymologisch) 관점에서 부치사를 분류하고, 5가지의 텍스트유형에 기반한 코퍼스에서 부치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부치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를 가시적으로 보임으로써 부치사나 문법화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많이 다뤄지지 않은 전치사적 목적어(Präpositionalobjekt)를 반영해 전반적인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를 알아 봄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부치사 연구를 하는 데 본고의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우선 문법화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개괄하고, 내용어와 기능어의 구분이나 문법성 등 문법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후 2.1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문법화의 분석 도구로 쓸 Lehmann(2015)이 제시한 문법화의 6가지 매개변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간략히 말해 기호의 자율성이 사라지면서 기호의 문법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문법화라 하며 그에 기반하여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설명할 것이다. 2.2장에서는 문법화를 일으키는 여러가지 인지적인 기제들 중에서 재분석, 유추, 은유 및 환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문법화가 촉발되거나 문법화 과정을 유지하는 데 일어나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할 독일어 부치사들의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 적합한 부치사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Angelika Wöllstein과 Dudenredaktion이 편찬한 *Duden Grammatik*(2016), Gerhard Helbig과 Joachim Buscha가 집필한 *Deutsche Grammatik*(2001), 그리고 Christer Lindqvist(1994)의 연구에서 독일어 부치사가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그 후 3.2장에서는 본 연구의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법화 정도의 분석에 적합한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를 제시한다.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작업을 한 후, 모든 부치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방대한 양의 작업을 요구하므로, 각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를 선정한다.

4장에서는 문법화론을 토대로 언어학적 분석 작업을 실행한다. 2장에서 알아본 문법화의 매개변항과 인지적 기제작용을 도구 삼아 3.2장에서 분류한 독일어 부치사들의 유형을 대표하는 것들에서 문법화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알아본다. 4장의 마지막에 문법화론의 관점에서 독일어 부치사의 종합적인 변천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싣도록 한다.

2. 문법화론

문법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Campbell/Janda(2001)가 지적하듯이, 문법화론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많으며, 이미 이전에 제안된 방법으로도 핵심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할 정도로 새로 나오는 문법화의 정의들은 지엽적인 현상만을 다룬다. 더불어 Campbell/Janda는 문법화를 "추정컨대 새롭고 질적으로도 독특한 개념적 장치(putatively new and qualitatively unique conceptual apparatus)"라 일컬으면서 문법화에 대한 더욱 심도있고 확장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문법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난잡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문법화 현상 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논의한다.

한 언어의 어휘부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그 의미의 속성에 따라 크게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뉜다. Bußmann(2008)에 따르면, 내용어(Inhalts-wort; Autosemantikum)는 문맥과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기능어(Funktionswort; Synsemantikum)는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 자립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를 가리킨다. 전자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가 속하며, 이들은 각각 대상, 행위, 특징을 지칭한다. 반면 후자는 부치사, 접속사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각각 대상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담화(Diskurs)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 단어가 기능어로 새로 편입될 때 많은 경우에 내용어가 기능어의 문법적 기능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단어를 '문법화된 형태(grammaticalized form)'로 보는 견해가 널리 공유된다(vgl. Hopper/Traugott 2003).

'문법화(Grammatikalisierung)'라는 용어는 Antoine Meillet(1912)가 처음 도입하였는데, 그는 문법화를 "원래는 자립적이었던 단어에 문법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l'attribution du caractère grammatical à un mot jadis autonome)"[6]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20세기 이후 문법화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왔고, Jerzy Kuryłowicz(1965)는 아래 (3)과 같이 문법화를 정의하였고, 이 정의는 현대 문법화론에서 가장 널리 준용된다.

[6] "the attribution of grammatical character to an erstwhile autonomous word" (Hopper/Traugott(2003)에서 재인용)

(3) 문법화란, 형태소의 범위가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 혹은 파생형으로부터 굴절형이 형성되는 것처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7] (vgl. Kuryłowicz 1965: 69)

위 정의를 이해하려면 우선 형태소가 '문법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하는데, Lehmann(1995: 1253)은 '문법적(grammatisch)'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기호가 문법적이라 함은 우선 기호가 문법체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혹은 문법 규칙에 의거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상술한 문법화의 정의에서 '문법적'이라는 표현의 뜻으로는 전자의 경우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법화 현상이 내용어가 기능어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문법적'인 언어기호는 '어휘적(lexikalisch)'인 언어기호와 대비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기호는 완전히 문법적이거나 어휘적일 수는 없으며,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양극단으로 하는 축의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곧 언어기호가 어느 정도로 문법적인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정도를 문법성(Grammatizität)[8]이라 한다. Traugott/Trousdale(2010)에서 언급되듯이, 문법성은 Bas Aarts (2007)가 (4)처럼 문법의 본질적 특징으로 본 통사적 연속변이(syntactic gradience)로도 설명할 수 있다.

(4) 문법에서의 연속변이는 주로 형식범주의 두 가지 유형 α와 β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즉 특정 원소들은 분명하게 α와 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소들은 두 범주 사이의 중간지대에 속하는 현상을 뜻한다.[9] (vgl. Aarts 2007: 34)

---

[7] "Grammaticalization consists in the increase of the range of a morpheme advancing from a lexical to a grammatical or from a less grammatical to a more grammatical status, z. B. from a derivative formant to an inflectional one." (vgl. Kuryłowicz 1965: 69)

[8] Lehmann(2015)은 '문법적'에 해당하는 영문 표현으로 'grammatic'과 'grammatical' 중 후자를 채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미 학계 및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후자일 뿐 아니라, 문법화라는 용어를 처음 고안해 낸 Meillet의 모국어인 불어에서는 한 가지의 표현(grammatical)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법성'의 표현으로는 'grammatical'에 특성의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 '-ity'를 붙인 'grammaticality'를 채택하였다.

[9] "Gradience in grammar is usually characterized as the phenomenon of

이 정의를 참고하여 문법성을 살펴본다면, 언어기호는 '문법적'인 범주와 '어휘적'인 범주로 나뉘고 이들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두 범주의 사이에는 수많은 언어기호들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 기호들은 각각 상이한 정도의 문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법성이 어느 정도로 상이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아래 2.1장에서 Lehmann(2015)이 기술한 문법화의 매개변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문법화의 매개변항

Lehmann(2015: 129ff.)은 문법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언어기호의 자율성(autonomy)을 제시하였다. 언어기호는 언어 사용자의 결정이나 문법으로 구현된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형성되는데, 후자에 따라 구성된 것은 전자의 경우보다 독자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더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기호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정도를 기호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율성과 문법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 결론적으로 자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곧 문법성을 측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 수 있다.

자율성을 알아보는 데에는 무게(Gewicht), 응집성(Kohäsion), 그리고 유동성(Variabilität)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무게란 하나의 기호가 그가 속한 계열체(Paradigma)의 다른 기호들과 구별짓게 만들고 다른 기호들과의 결합체(Syntagma) 내에서 두드러지게끔 하는 자질이다. 응집성은 하나의 기호가 문법 체계상 다른 기호와 갖는 관계를 나타내는 자질이며, 끝으로 유동성은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로 대체되거나 문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게와 유동성은 감소하고, 응집성은 증가한다.

자율성의 세 가지 측면은 다시 언어의 기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

blurred boundaries between two categories of form classes α and β, such that certain elements can be said clearly to belong to α, others indisputably to β, with a third group of elements belonging to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two categories." (vgl. Aarts 2007: 34)

계열관계(paradigmatische Beziehung)와 결합관계(syntagmatische Beziehung)로 구분된다. 계열관계는 기호들 간의 종적 층위에서의 대체가능성(Austauschbarkeit)으로, 결합관계는 횡적 층위에서의 결합가능성(Kombinierbarkeit)으로 정의할 수 있다(vgl. Bußmann 2008: 504). 이 두 가지 기호들 간의 관계와 자율성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성의 정도가 변하는, 즉 문법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Lehmann은 그 기준을 일컬어 문법화의 매개변항(Parameter der Grammatikalisierung)이라 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총 6가지 매개변항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의 척도	기호들 간의 관계	
	계열적 (paradigmatisch)	결합적 (syntagmatisch)
무게 (Gewicht)	온전성 (Integrität)	구조적 범위 (struktureller Skopus)
응집성 (Kohäsion)	계열성 (Paradigmatizität)	결합성 (Fügungsenge)
유동성 (Variabilität)	선택가능성 (Wählbarkeit)	위치자유도 (Stellungsfreiheit)

<표 1> 문법화의 매개변항 (vgl. Lehmann 2015: 132)

후술하겠지만 각 변항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계열적 무게는 기호의 기표와 기의 측면에서의 복합성으로, 온전성이라고도 불린다. 기호의 결합적 무게는 기호가 통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로, 이는 구조적 범위로 표현된다. 계열적 응집성은 곧 기호가 속한 계열이 얼마나 구성력을 지니는가를 나타내는 계열성을, 결합적 응집성은 기호를 포함하는 구조 내 성분들이 얼마나 긴밀히 관계하는지를 나타내는 결합성을 가리킨다. 계열적 유동성은 기호가 구조 안에서 같은 계열 내의 다른 원소들로 대체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하는 선택가능성을 지칭한다. 끝으로 결합적 유동성은 결합체 내에서 기호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위치 자유도로 나타난다.

문법화의 6가지 변항들은 문법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각 변항들을 기준으로 기호의 특성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무조건 문법화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변항들 간의 상호작용과 각 변항에 따른 기호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문법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각 변항에 대하여 2.1.1장부터 2.1.6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한다.

2.1.1 온전성

기호의 계열적 무게, 즉 온전성은 음운과 의미 측면에서 기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크기로, 한 기호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나타냄으로써 다른 기호들과의 구별을 가능케 한다.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음운과 의미 두 층위에서의 온전성이 축소하는데, 전자는 음운론적 축소(phonologische Reduktion)를 뜻하며,[10] 후자는 탈의미화(Desemantisierung)[11]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기호의 형태론적 온전성 또한 앞선 두 가지 현상과 병행하여 감소하는데, 이를 형태론적 퇴화(morphologische Degeneration)라 부른다. 전반적으로 온전성을 감소시켜 문법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축소(Reduktion)라 통칭한다.

먼저 음운론적 축소는 기호의 음운론적 자질이 점진적으로 소실되는 과정을 뜻하며, 이를 통해 기호가 형식적으로 짧아져 경우에 따라서 기표(significans)[12] 자체가 소실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문법화 현상이 항상 기표의 소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라틴어 지시사 *ille*은 앞의 음절이 축소되어 불어의 남성형 정관사 *le*로 문법화되었고, 정관사 뒤에 위치하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l/만 발음된다(*le avion* > *l'avion*). 또한 독일어 부정관사는 현대 독일어에서 전치사나 정동사의 뒤에 올 때 (5)의 예문처럼 축소되어 실현되기도 한다(vgl. Szczepaniak 2009: 79).

(5) a. auf *'ne* Tasse (< auf eine Tasse)
b. mit *'nem* guten Freund (< mit einem guten Freund)
c. Ich hab *'ne* Wohnung. (< Ich habe eine Wohnung.)

음운론적 축소가 기표 층위에서의 온전성의 감소라면, 기의 층위에서 온전성이 감소하는 것은 탈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탈의미화

[10] Heine/Reh(1984)는 침식(ero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11] Gabelentz(1901)가 탈색(Verbleichu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 개념은 기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점차 잃는 탈의미화 현상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2] Lehmann(2015)은 기표와 기의를 나타낼 때, Saussure(1916)의 불어식 표현인 signifiant과 signifié를 쓰지 않고 라틴어식 표현인 significans와 significatum을 사용한다.

란 기호를 구성하는 의미 자질(semantische Komponente)이 소실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의미성(Semantizität)의 감소를 뜻한다.[13] 예를 들어, 라틴어 *de*는 하강격(Delativ)의 의미와 탈격(Ablativ)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었지만, 로망스어로 넘어오면서 하강격의 의미를 잃고 불어의 *de*로 발달하면서 이동의 의미마저 소멸되어 결국엔 속격(Genitiv)의 의미만을 가진 부치사로 문법화되었다.

탈의미화 현상과 관련하여 Lehmann(2015)은 기호의 두 가지 의미 층위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의미자질을 가지는 기호의 의미는 보편의미(Gesamtbedeutung)와 핵심의미(Grundbedeutung)로 나뉘는데, 전자는 모든 의미자질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의미, 후자는 각 의미자질이 특징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뜻한다. 이 때 보편의미는 꼭 구체적이어야만 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문법적 자질로 간주되는 관계성(Relationalität)이 포함된다. 탈의미화는 기본적으로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14]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기호의 핵심의미가 사라지고 보편의미만 남는 과정'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음운론적 축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법화론에서의 탈의미화는 의미의 완전한 소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호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기능 또한 없기에 기능어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앞서 언급한 불어 *de*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화를 거친 기호는 단순한 관계성에 더하여 약간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

축소의 세 번째 유형은 형태론적 퇴화로, 굴절 능력으로 대표되는 형태론적 온전성이 감소하는 과정이다. 동사와 같이 원래 굴절이 가능한 범주에 속해 있던 한 기호의 굴절형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면서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 더 이상 굴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 *würde*의 경우, 형태상 동사 *werden*의 과거 접속법 2식을 나타내는 굴절형과 같지만, 가정(Subjunktiv)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여 현대 독일어에서는 더 이상 '~이 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werden*과는 무관한 기호가 되었다.

---

[13] Lehmann(2015)은 기호의 의미적 표상이 다양한 의미 자질을 통해서 실현되며, 그 자질들이 결합하여 기호의 의미적 복합성, 즉 의미성을 이룬다고 상정한다.

[14] "die Stufenfolge, in welcher die ursprüngliche Bedeutung sich verloren hat" (Humboldt 1822: 55; Lehmann(2015)에서 재인용)

2.1.2 구조적 범위

기호의 결합적 무게, 즉 구조적 범위는 여러 기호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룰 때 특정 기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크기를 지칭하며, 문법적 구조의 규모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문법화의 진행과정에 따라 문법적 규모는 줄어들며, 이 현상을 축약(Kondensierung)이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6)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어의 *haben* 동사가 본동사로 쓰였을 경우, 구조적 범위는 절 전체이지만, 문법화가 진행되어 조동사로 쓰였을 경우, 범위는 절에서 동사구 층위로 축약된다.

(6) Eisenberg 2013
   a. Karl *hat* zwanzig Dollar zur Verfügung.
   b. Sie *hat* das Auto in die Garage gefahren.

중요한 점은 구조적 범위의 변화를 알아볼 때 기호들 간의 타당성에 기반한 의미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합적인 형태-통사적 관계(syntagmatische morphosyntaktische Beziehung)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미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조적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면, 구조적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Traugott(1980)이 지적하듯이 아래 (7)의 두 문장은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데, 이는 접속사 *and*가 두 명제를 병치하는 지시적 의미 뿐만 아니라, 텍스트적 의미를 포괄하게 되어 의미적 범주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법 표지가 문법적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문법화론의 범위를 벗어나 의미론과 연관되어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호의 구조적 범위는 형태-통사론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vgl. Lehmann 2015: 153ff.).

(7) a. A man climbed up to the roof *and* jumped onto the next building.
   b. A man jumped onto the next building *and* climbed up to the roof.

2.1.3 계열성

기호의 계열적 응집성, 즉 계열성은 형태적이나 의미적으로 하나의 기호가 자신이 속하는 상위 계열 내에서 가지는 응집성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근거는 해당 계열의 크기라 할 수 있으며, 계열의 크기가 클수록 계열성은 떨어지고 이는 곧 문법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2장의 도입부에서 소개된 단어의 내용어와 기능어로의 구분은 계열의 확장이 용이한가의 여부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수시로 편입될 수 있는 내용어는 개방범주(offene Klasse), 단어의 개수가 제한적이며 생산적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기능어는 폐쇄범주(geschlossene Klasse)로도 불린다(vgl. Dürscheid 2012: 22f.). 이 때, 개방범주에 속하는 품사들은 폐쇄범주의 품사보다 계열의 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문법성이 낮다. 예를 들어 영어 *front*나 *back*과 같이 우언적(peri-phrastisch)으로 공간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들은 개방범주에 속하여 계열성이 낮다. 반면 *in*과 *on* 같이 대상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치사는 폐쇄범주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관계성이라는 문법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열성이 높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기호는 어휘와 문법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라 두 범주의 속성을 정도를 달리 하여 동시에 가진다. 또한 무엇보다 문법화가 단어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열의 단순한 크기만을 계열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Lehmann(2015)은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의 동질성(homogeneity)을 추가로 계열성의 척도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wer, was, wo* 등의 독일어 의문사는 모두 'w'로 시작한다는 형태적 공통점을 지녀 'w-Wörter'로 통칭된다. 다른 대표적인 예시인 지시대명사의 경우 범언어적으로 앞서 나온 대상을 지칭하는 순행조응적(anaphorisch)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에 미루어 보아 의문사와 지시대명사의 계열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법화를 거치지 않거나 약한 정도로 문법화된 계열에 속한 원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때 원소들 간의 차이점을 점차 상쇄하면서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계열의 계열성이 증가하는 과정을 가리켜 계열화(Paradigmatisierung)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 부치사 *während*는 현대 독일어에서 부치사 계열에 속해 있지만 본래 동사의

분사 형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지니고 있던 분사로서의 정체성이 현재에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즉, während의 계열화는 상당 정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vgl. 이성하 2015: 175).

문법화의 마지막 과정에서 계열은 더 이상 생산성을 잃어 굳어지는데, 이를 화석화(fossilization)[15]라 한다. 계열화가 진행되면서 보통 그 크기가 줄어들기 마련이고, 가장 흔한 경우가 동사의 태(능동/수동)나 명사의 수(단수/복수)와 같은 계열의 양분화이다. 하지만 화석화는 계열의 단순화만 상정하지 않고, 오히려 형태적 불규칙성을 띠며 계열이 복잡해지는 과정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 계사동사 *sein*의 현재 시제 활용형은 *bin, bist, ist, sind*인데, 이들 각자 고유의 어원을 가지지만 현대 독일어에서는 *sein*의 활용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 계열은 화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6] 이렇게 상이한 어원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계열 내에 정착하는 과정은 보충법(Suppletion)이라 한다.

2.1.4 결합성

기호의 결합적 응집성, 즉 결합성은 기호가 하나의 구조를 구성하는 다른 기호와 맺는 긴밀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문법화와 정비례 관계에 있다. 결합성은 문법화가 진행될수록 그 정도가 높아지는 유착(Koaleszenz) 현상이 일어나는데, 흔히 음운론 층위에서 나타나며 그 양상은 정도가 강할수록 병치(Juxtaposition), 접어화(Klitisierung), 교착화(Agglutination), 그리고 융합(Fusion)의 순서로 실현된다.[17] 또한

---

[15] 화석화란 생산적 형태소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삼는 언어적 현상이며, 형태소의 형태적 불규칙성을 수반한다.
"The main characteristic of Fossilization is that it turns productive morphemes into unproductive ones. (…) A concomitant feature of Fossilization is that it leads to morphological "irregularity"." (vgl. Heine/Reh 1984: 35f.)

[16] Givón(1979: 209)은 이런 경우를 들어 문법화의 마지막 단계가 '어휘화(lexicalization)'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화석화된 기호는 문법 규칙을 당연히 따르지만,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gl. Lehmann 2015: 145).

[17] 접어화는 문법화된 기호가 인접한 단어의 강세 구조로 귀속되는 현상, 교착화는 문법화된 기호가 다른 기호에 붙는 접사(affix)가 되는 현상, 마지막으로 융합은 문법화된 기호가 형태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다른 형태소의 일부로 포함되는 현상을 가리킨다(vgl. Lehmann 2015: 157).

나열된 유착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호에 유착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호들이 상호간 문법적 관계 하에 필수적으로 놓여야 한다.

예를 들어 라틴어 지시사 *ille*가 로망스어로 발달한 경우를 보면, 불어 정관사 *le*는 일부 명사 앞에 접어화하여 전접사(Proklitikum)로 쓰이며,[18] 루마니아어 정관사 *l*은 *Băiatul*(< *băiat* + *u* + *l*; '그 소년')에서 볼 수 있듯이 접미사로 쓰여 교착화가 일어났다. 또한 독일어 부치사 *trotz*는 후행하는 명사구와 병치되어 *trotz des Wetters*에서와 같이 단순히 병치되지만,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부치사 *zu*의 경우 뒤에 오는 정관사와 융합되어 *zur*(< *zu* + *der*)로 쓰인다.

Lehmann은 음운론 단계에서 유착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통사적 징후(syntaktische Anzeichen)가 관측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문법 형태가 등위접속구조(koordinierende Konjunktion)에서 생략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이며, 두 번째 징후는 문법 형태와 구조 안에서 병치되는 경향이 있는 구성성분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유착의 두 가지 징조와 관련한 현상을 아래 예문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vgl. Lehmann 2015: 159f.).

(8) a. *to* describe and explain (engl.)
b. *zu* beschreiben und *zu* erklären (dt.)
c. **zu* beschreiben und erklären (dt.)

(9) a. *to* fully describe (engl.)
b. vollständig *zu* beschreiben (dt.)
c. **zu* vollständig beschreiben (dt.)

(8)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접속구조에서는 *to*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독일어 *zu*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는 독일어 '*zu* + Infinitiv' 구문이 결합성이 높아 *zu*가 영어의 *to*보다 문법화를 더 많이 거쳤음을 의미한다. (9)에서도 *zu*의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어 *to*와 달리 동사의 부정형과의 높은 결합성으로 인해 그 사이에 다른 기호가 들어가면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Lehmann은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발달하는 현상인 단일어화(Univerbierung)를 유착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한계

[18] 본고 2.1.1장 참고.

가 있다고 본다. 단일어화의 예로는 '절대 ~이 아닌'라는 뜻의 독일어 *keineswegs*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keines Wegs*라는 구조가 단일어화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교착화와 비슷하게 보여 두 현상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단일어화는 한 언어사회에서 빈번히 쓰이면서 연어관계(Kollokation)를 이루는 특정한 두 단어가 합쳐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언어 사용자들 간에 일어나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현상이다. 반면에 교착화는 하나의 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또한 단일어화의 영향력은 순전히 단어 수준에 그치지만 교착화, 더 나아가 기호들 간의 유착은 절, 단어, 형태소 등의 여러 통사적 층위들을 넘나들며 일어남으로써 문법 범주의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기호들의 형태-음운론적 층위에서의 결합을 다뤘는데, 이때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결합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유착은 의미적 유착(semantische Koaleszenz)을 논외로 둔다. 예를 들어 '한 번 접은'이라는 복잡한 어휘적 의미를 지닌 고대 라틴어(Pre-Latin) *sim-plec-s*는 불어 *simple*로 발달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기의의 융합이 기표의 융합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지만 Lehmann(2015)은 이 현상에 대하여 문법화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어휘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미적 결합성은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문법적 의미가 인접한 단어의 어휘적 의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어와 기능어의 구분을 다시 보자면, 내용어는 그 자체로 대상이나 상태 등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문법화가 진행되어 기능어가 된 경우에는 다른 단어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능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의미적 의존도는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커지며, 이는 격 표지가 독립적으로는 의미역(semantische Rolle)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명사와의 관계 하에서만 의미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격 표지는 명사, 시제 표지는 동사와 결합하는 등 기능어가 내용어에 속하는 특정 품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법화된 기호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1.5 선택가능성

기호의 계열적 유동성, 즉 선택가능성은 언어 사용자가 기호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지는 자율성을 뜻한다. 문법화론에서 기호 선택은 언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행하는 자유 선택(freie Wahl)이 아니라 대립(Opposition) 관계에 놓인 다른 대체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선택가능성은 다시 하나의 계열에 속한 기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느냐, 혹은 아예 계열 자체를 선택의 고려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느냐에 따라 계열내적 유동성(intraparadigmatische Variabilität)과 초계열적 유동성(transparadigmatische Variabilität)으로 나뉜다.

언어 사용자가 계열 안에서 대립 관계에 놓인 원소들을 선택할 때, 계열 전체의 문법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문법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 결정의 폭이 좁아진다. 즉, 계열내적 유동성은 문법성과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분류사와 명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분류사의 문법화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언어에서는 명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류사의 개수가 다수이지만, 분류사의 계열의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언어의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극소수로 제한된다. 계열내적 유동성이 작은 대표적인 것으로 또한 독일어 명사의 격을 들 수 있다. 독일어에서는 명사가 부치사와 결합되어 쓰이거나 특정 동사의 결합가(Valenz)에 귀속되는 경우, 격은 부치사나 동사에 의해 결정되어 유동성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한편 초계열적 유동성과 관련해서, 여기서의 계열은 상위 계열인 문법 범주부터 그 하위 범주(Subkategorie)까지 포함한다. 언어 사용자는 문법 범주를 특정하여 명시하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고 배제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문법적 제약에 의해서 불가능할 때 해당 계열은 의무적이며, 그 정도를 가리켜 의무성(Obliegenheit)이라 한다. 의무성은 초계열적 유동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며,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계열의 의무성이 점차 증가하여 초계열적 유동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무화(Obligatorisierung)라 한다. 이에 따라 초계열적 유동성은 의무화 정도와 반비례 관계, 의무화는 문법성과 정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의무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도유럽어족 언어의 관사를 들 수 있다(vgl. Lehmann 2015: 149). 예를 들어 라틴어에서는 명사 앞에서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이 없었지만, 로망스어로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관사의 사용은 점차 의무화되어, 현대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에서는 관사를 배제한 채 단수 명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관사를 통해 나타내는 계열인 한정성(Definitheit)이 의무화되어 초계열적 유동성이 소실된 것이다.

그런데 Lehmann(2015)은 계열내적 유동성에서의 제한과 문법 범주 자체의 의무화가 서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하나의 계열이 문법적으로 무표적(unmarkiert)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을 때, 무표적인 표현 대신 다른 원소를 선택하는 것이 계열내적 유동성을 나타내는 경우인지, 아니면 계열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19] 따라서 Lehmann은 계열내적 및 초계열적 유동성을 '선택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매개변항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선택가능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통틀어 '의무화'로 일컫는다.

2.1.6 위치자유도

기호의 결합적 유동성, 즉 위치자유도는 기호가 문장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항으로,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다. 문법화론에서 기호의 이동이라 함은 주로 자신이 속한 구조 내의 구성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가를 의미한다. 이 변항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부사와 부치사의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부치사들은 부사에서 비롯되었다.[20] 현대 부치사가 이전에 부사로 쓰였을 당시에는 명사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명사구와의 긴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치가 명사구의 인접한 앞이나 뒤로 고정되어 각각 전치사와 후치사로 발달하였다. 이렇게 문법화의 진행과정에서 구조 내에서의 기호의 위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고정(Fixierung)이라 한다.

기호, 구체적으로 문법 형태(grammatical formative)가 두 가지의

---

[19] Lehmann(2015: 148)이 든 예시는 문법 범주 '수량'에서, 무표적인 단수 표현 대신 복수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20] 부치사는 본래 장소부사로부터 생성된, 굴절이 불가하며 문장성분이 될 수 없는 품사이다. 부사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독일어 부치사 *bei*처럼 부치사가 주된 용법 이외에도 접두어나 부사로도 쓰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vgl. Bußmann 2008: 544).

구성성분을 필요로 하는 구조[21]를 이룰 때 기호는 두 성분에 대해 다른 속도로 위치자유도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어의 기능동사구(Funktionsverbgefüge)를 들 수 있다. '문제가 되다'의 뜻을 가지는 구조 '*in Frage kommen*'에서 전치사 *in*과 *Frage* 사이의 결속력은 *infrage*와 같이 한 단어로 쓰이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동사 *kommen*과 부치사구 *in Frage*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비교적 느슨하다. 즉 "*Von den Bewerbern kommen nur zwei in Frage*."에서 보이듯이 *kommen*과 *in Frage*는 분리되어 쓰이고 *in*과 *Frage*는 높은 결합도를 보여 사이에 다른 요소를 허락하지 않는다.

문법화된 기호가 구조 내에서 고정될 때 그 위치는 많은 경우 기존, 즉 어휘소(Lexem)였을 때와 달라진다. 부치사는 부사 뿐만 아니라 동사의 분사형에서도 유래하는데, '~에 따라서'의 의미를 가지는 독일어 부치사 *entsprechend*는 분사로 쓰였을 때에는 그 대상을 자신의 앞에 두었지만((10a)), 전치사로 문법화가 이뤄지면서 대상의 앞으로 이동하였다((10b)).

(10) a. deinen Vorschlägen *entsprechend*
b. *entsprechend* deinen Vorschlägen

지금까지 Lehmann(2015)이 제시한 문법화의 6가지 매개변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들 변항들은 기호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척도 역할을 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전성, 구조적 범위, 선택가능성과 위치자유도는 감소하며, 계열성과 결합성은 증가한다. 이렇듯 기호의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호가 갖고 있는 각 매개변항의 값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이 때 각 매개변항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아래 <표 2>로 나타내었다(vgl. 이성하 2016: 171). 다음 2.2장에서는 문법화가 어떠한 기제들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알아보도록 한다.

[21] Lehmann(2015: 168)이 언급한 "verb – adverbial relator – NP" 구조가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예시이다. 연결어(Relator)는 Lehmann/Stolz(1992: 8)의 표현으로, 자신의 앞뒤로 지배관계(Rektion)에 있는 두 빈칸(Leerstelle)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기호이다.

매개변항	>>	과정
온전성	감소(-)	축소(Attrition)
구조적 범위	감소(-)	축약(Kondensierung)
계열성	증가(+)	계열화(Paradigmatisierung)
결합성	증가(+)	유착(Koaleszenz)
선택가능성	감소(-)	의무화(Obligatorisierung)
위치자유도	감소(-)	고정(Fixierung)

<표 2> 문법화의 진행에 따른 매개변항별 변화와 과정
(vgl. 이성하 2016: 171)

2.2 문법화의 기제

2.2.1 재분석

재분석(Reanalyse)은 문법화의 기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으로, Langacker(1977: 58)는 재분석을 "한 표현이 표면상 직접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형을 전혀 거치지 않으면서 겪는 변화"[22]로 정의하면서, 재분석으로 인한 기호의 형태적 변화는 규칙이나 표상 방식이 기능 측면에서 달라진 결과라 하였다. 이에 대해 Lehmann(2004)은 재분석은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현상이 일어난 후 결과로서 얻어진 새로운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Hopper/Traugott(2003: 51)은 재분석의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하나는 한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관계(constituency)가 달라지는 재괄호화(rebracketing)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소들이 속한 의미-통사적 범주가 변하는 재배정(reassignment)이다. 한편 구명철(2015: 127)은 아래와 같이 재분석을 간단한 도식과 함께 설명하였다.

(11) [A [B C]] → [[A B] C]
"B와 C가 결합된 뒤 이것이 A와 결합하여 전체의 구조를

[22] "… change in the structure of an expression or class of expressions that does not involve any immediate or intrinsic modification of its surface manifestation."

구성하던 것이 A, B가 먼저 결합한 뒤에 이것이 C와 결합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재분석의 예시로는 현대 독일어 부정사 구문 *'um … zu'*의 변화를 들 수 있다(vgl. Lehmann 2004: 160). 재분석을 거치기 전에는 아래 (12a)처럼 *um Wasser*가 부치사구, *zu holen*이 동사 *gehen*의 보족어로서 기능했지만, 현대에는 *Wasser*가 *holen*의 직접목적어로 해석되었고 *um*은 단지 해당 구문을 시작하는 접속사의 역할만을 하여 (12b)와 같이 재분석되었다.

(12) a. ging [um Wasser] [*zu holen*]
b. ging [um [Wasser *zu holen*]]

한편 Lehmann(2004)과 Hopper/Traugott(2003)이 지적하듯, 한 구조가 재분석이 일어났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문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단어 혹은 형태소들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거나,[23] 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 문법적 구조에서 어휘적 구조로 변하는 전환(Konversion)과 같은 현상들은 재분석은 일어났지만 문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경우이다. 즉. 문법화는 재분석을 항상 동반하지만 역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재분석은 단지 문법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2 유추

유추(Analogie)는 일반적으로 한 언어 기호가 비슷한 의미, 기능, 혹은 음성적 특징을 가지는 다른 기호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그러한 형태가 새로 생기게끔 하는 인간의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 유추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추를 통한 기호의 변화나 생성은 형태나 기능의 유사성을 기초로 하며, 기본적으로 'A : B = C : x'의 형식에서 x값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vgl. 이성하 2016: 239). 이 때 특정한

[23] Lehmann(2002)은 재분석이 복합 부치사 및 접속사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이라 하였고, 신용민(2018)은 복합 부치사가 많은 경우에 일차적 부치사를 포함하는 구조가 관계적 명사를 중심으로 재분석되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데, 복합 부치사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후술할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기호를 만들어 내는데 쓰이는 해당 비례식을 유추 모델(analogical model)이라 하며,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계열 내의 여러 원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추를 규칙의 일반화(rule generalization)로 보기도 한다(vgl. Kiparsky 1968). 가장 잘 알려진 유추의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복수 표지 '*-s*'의 경우를 들 수 있다(vgl. Hopper/Traugott 2003: 64).

(13) cat : cats = child : X → X = childs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이다. 이를 통하여 유추 혹은 규칙의 일반화는 하나의 계열 전체를 관통하여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어 동사의 과거시제는 보통 어미 '*-te*'가 붙는게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z. B. *studieren – studierte*; *essen – aß*).

또한, 기호의 의미 측면에서도 유추가 기제로 작용하여 의미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부치사 *anstatt*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한다(vgl. 구명철 2015: 129ff.). *anstatt*는 본래 *an Statt*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때 *Statt*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로, 뒤에는 자리의 '주인'인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z. B. *an statt des Kaisers*)가 위치하였다. 하지만 *an statt*가 협착이 되어 부치사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사람 뿐만이 아니라 물체나 추상적인 대상도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z. B. *Anstatt Worten will ich Taten sehen.*).

Meillet(1912)가 지적했듯이 유추는 문법화와 엄격히 구분되는 현상으로,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현존하는 다른 형식으로 끌어들여 계열의 확장을 이끄는 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법화의 과정에서 유추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로망스어군 내에서의 어순 변화를 동반하는 문법화가 일어날 때에 시제/상/법에서의 유추가 변화의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vgl. Lehmann 2004: 159). 다시 말해, 재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추 또한 문법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임은 분명하다.

2.2.3 은유 및 환유

은유(Metapher)와 환유(Metonymie)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에 내재하는 것으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개입되며 이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기호의 의미 변화이다. 먼저 은유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널리 인정되는 것은 Lakoff/Johnson(2003: 5f.)의 설명이다. Lakoff/Johnson은 은유의 본질이 하나의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두 개념 사이를 잇는 은유 현상을 개념적 은유(konzeptuelle Metapher)라 하였다. 개념적 은유는 'A IST B'의 형식으로 표현되며(z. B. ARGUMENT IST KRIEG), B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A와 관련한 인간의 활동과 그 개념을 간접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Lakoff/Johnson(2003)은 인간의 개념체계에 정착한 은유를 크게 공간의 방향성에 기반한 지향적 은유, 인간의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에 기반한 존재론적 은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구조에 기반한 구조적 은유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24] Heine et al.(1991: 48)은 이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인 범주적 은유(categorical metaphor)를 제안하면서 아래 (14)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더 추상적인 범주가 된다.

(14) PERSON > OBJECT > PROCESS > SPACE > TIME > QUALITY

위 범주의 이동 방향을 따라 문법화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어 공간부치사 *von*의 문법화를 들 수 있다(vgl. 구명철 2012; 2015: 133). 본래 *von*은 공간적으로 '출발점'을 표현하는 부치사

[24] Lakoff/Johnson(2003: 264)이 새로 쓴 후기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피상적일 뿐이며, 모든 은유는 구조적이며(은유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존재론적이며(목표 영역이라는 개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지향적이라고(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도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급한다.
"The division of metaphors into three types—orientational, ontological, and structural—was artificial. All metaphors are structural (in that they map structures to structures); all are ontological (in that they create target domain entities); and many are orientational (in that they map orientational image-schemas)."

인데((15a)) 한 기간의 '시작점'((15b)), 사건의 '원인'((15c)), 대상의 '특성'((15d))을 나타내는 부치사로 그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널리 쓰인다. 더 나아가 부치사 *von*이 속격을 대체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 것에 미루어 보아((15e)) *von*의 문법화는 상당히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a. Der Zug kommt *von Berlin.*
b. *Von acht Uhr* bis halb zehn habe ich Unterricht.
c. Peter ist müde *von der Arbeit.*
d. Petra war eine Frau *von großer Schönheit.*
e. das Fenster *von meinem Zimmer.*

은유가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인지적 활동이라면, 환유는 '부분과 전체', '생산자와 제품'과 같이 두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인접성(Kontiguität)에 기초한 인지과정이다. 환유는 한 개체를 어떠한 식으로든 인접해 있는 다른 개체에 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함관계에 기반한 인지활동인 제유(synecdoche)를 포함하는 비유법이라 할 수 있다(Heine et al. 1991: 61). 한편 Anttila(1972: 142)는 환유가 특정 문맥에서는 그에 맞는 의미적 관계, 즉 다양한 인접성을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가장 많이 다뤄진 문맥의 세 가지 유형은 사회심리적 혹은 사회문화적 경험,[25] 많은 경우에 생략으로 귀결되는 발화(혹은 연어관계),[26] 그리고 부분-전체 관계(제유)[27]이다(Traugott/König 1991: 210f.에서 재인용).

환유가 적용된 예시는 독일어 복합 부치사 *im Vorfeld*를 들 수 있다(vgl. 신용민 2018: 87). 본래 *im Vorfeld*는 말 그대로 '전방'의 뜻을 가지는 *Vorfeld*를 포함하고 있어 '앞'이라는 공간적 지향성을 띠고 있다(z. B. *im Vorfeld des Flughafens*).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시간적 문맥에서 쓰인 경우 어떠한 시점 '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z. B. *im Vorfeld der Konferenz*). 즉, 두 문맥에서 *im Vorfeld*는 '앞'이라는 공통된 인접성을 지니고 있어 환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비유법을 문법화와 관련시켜보면, 은유적 추론(metaphoric inference)은 여러 개념들을 넘나드는 기호의 계열적 측면을 따라

[25] "Contiguity in socio-physical or socio-cultural experience"
[26] "Contiguity in the utterance (that is, collocation), often ending in ellipsis"
[27] "Synecdoche or the part-whole relation"

작용하는 반면 환유적 추론(metonymic inference)은 다른 형태통사적 기호들과의 전반적인 문맥에 따른 의미적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호의 결합적 측면을 따라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vgl. Bisang 2017: 10). 따라서 두 가지의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ies)과 그에 따른 의미 변화가 문법적 의미를 얻는 과정인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은유와 환유가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vgl. Hopper/Traugott 2003: 75f.).

이번 2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문법화론의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3장에서는 문법화론을 바탕으로 연구할 대상인 독일어 부치사가 여러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고 각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3. 독일어 부치사의 분류

3.1 기존의 분류

부치사를 분류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본고는 부치사들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 볼 예정으로, 부치사가 문법화론과 유관한 기준들 하에서는 어떻게 분류된 바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호의 형태-통사적인 속성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문법화이기에 부치사의 의미론적 및 어원론적 분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형태나 기능 측면에서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3.1장의 분류들 중 일부는 전치사(Präposition)를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보고 보족어와의 위치에 따른 하위 개념인 전치사, 후치사, 환치사, 양치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명사의 격을 지배하면서 문장 성분으로서 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군)를(을) 부치사로 통칭한다. 따라서 각 문헌에서 'Präposition'을 상위 개념으로 기술했더라도 한국어 표현은 '부치사'로 통일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3.1.1 Wöllstein/Dudenredaktion(2016)

3.1.1.1 단순 부치사

단순 부치사(einfache Präpositionen)는 부치사들을 형태론 측면에서 분류했을 때 더 이상 분석이 불가한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진 부치사이다. 이 부류에는 대표적으로 독일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20가지 부치사가 속하며,[28] 대부분의 단순 부치사들은 3격 및 4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들이다. 독일어권 내에서의 사용 빈도와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부치사의 전형(prototypische Präpositionen)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단순 부치사들은 예외를

[28] in, mit, von, an, auf, zu, bei, nach, um, für, aus, vor, über, durch, unter, gegen, hinter, bis, neben, zwischen (vgl. Wöllstein/Dudenredaktion 2016: 612)

보이는데, 그 예로 부치사 *wegen*은 (16a)에서는 전치사로, (16b)에서는 후치사로 쓰였다.

(16) a. *wegen* einer privaten Feier
b. der Liebe *wegen*

통시적 관점에서 단순 부치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장소부사에서 유래했으며, 일부 부치사의 경우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다른 품사에 속하는 기호가 그 형태를 유지한 채 전환(Konversion)을 거쳐 부치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용사 *gleich*가 '~와 같은'의 뜻으로 *gleich ihrer Mutter*에서와 같이 부치사로 쓰인다. 또한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뤄진 언어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일형태소로 줄어들어 단순 부치사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부치사 *statt*로, 이는 동일한 의미의 *anstatt*에서 *an*이 탈락된 형태이다.

3.1.1.2 복합 부치사

복합 부치사(komplexe Präpositionen)는 형태적으로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뤄진 부치사이다. 복합 부치사는 단순 부치사보다 그 개수가 비교적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2격을 지배한다. 복합 부치사는 그 기원과 조어방식 또한 다양한데, 예를 들어 부치사 *entsprechend*는 동사 분사 *entsprechend*가 전환을 거쳐 형성되었고, 부치사 *mangels*는 명사 *Mangel*에 접미사 *-s*가 붙음으로써 파생을 거쳐 지금의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뤄진 단어군이 한 단어가 되는 과정, 즉 협착(Zusammenrückung)[29]을 거쳐 부치사가 되기도 하며, 그 예로는 *anhand*, *infolge* 등이 있다. 이 방식을 거쳐 복합 부치사로 편입되긴 했지만, 아직 현대 독일어에서 띄어쓰기를 유지한 채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어 정서법(Deutsche Rechtschreibung)에 따르면 두 경우에 대한 예시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29 한편 *aufgrund*/*auf Grund*와 같이 단어군이 한 단어로도, 원래의 단어군을 유지한 채로 부치사적 쓰임을 보이는 경우, 전자의 경우는 협착, 후자의 경우는 구가 단어로 전환이 되는 전환을 거쳐 조어된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즉, 이 때의 *auf Grund*는 단어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부치사로 간주되는 것이다. (https://grammis.ids-mannheim.de/systematische-grammatik/598)

종류	부치사
(i)띄어쓰기가 불가능한 경우	anhand, anstatt, infolge, inmitten, zufolge, zuliebe
(ii)띄어쓰기가 가능한 경우	anstelle/an Stelle; aufgrund/auf Grund; aufseiten/auf Seiten; mithilfe/mit Hilfe; vonseiten/von Seiten; zugunsten/zu Gunsten; zulasten/zu Lasten; zuungunsten/zu Ungunsten

<표 3> 협착이 이뤄진 복합 부치사의 종류

빈번히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이 단일어로 합쳐지는 과정이 복합 부치사의 형성 과정들 중 하나라면, 아직 복합 부치사의 형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합들이 존재할 것이라 추측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3.1.1.3 전치사적 단어결합

전치사적 단어결합(präpositionsartige Wortverbindungen)은 부치사의 기본적인 기능, 즉 명사의 격을 지배하고 명사와 문장 내 사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형태상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을 지칭하며, 제3의 부치사(tertiäre Präpositionen)로도 불린다.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대부분 '부치사 + 명사'의 구조를 가지고, 격 지배를 받는 명사는 결합체 내 명사의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2격 혹은 *von*-3격으로 나타난다(z. B. *im Laufe des Tages* / *im Laufe von Stunden*). 몇 가지 단어결합은 특정 부치사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에는 해당 부치사의 속성이나 문맥적 의미에 따라 명사의 격이 정해진다(z. B. *im Vergleich zu seinem Werk* / *in Bezug auf deine Arbeit*).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의 부치사 분류는 가장 표층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류체계를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는 대상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형태소 측면에서 분류한 단순 부치사들이 부치사라는 품사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점이다. 부치사의 전형적인 특징은 3격이나 4격을 지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단순 부치사에는 2격을 지배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z. B. *statt*, *dank*, *kraft*, usw.). 문법화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계열 내의 원소들 간에 기능상 차이가 적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고빈도 전치사들과 다른 단순 부치사들 간에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다음 Helbig/Buscha(2001)의 분류체계를 살펴 보려 한다.

3.1.2 Helbig/Buscha(2001)

3.1.2.1 일차적 부치사

Helbig/Buscha(2001)에서는 일차적 부치사(primäre Präpositionen)를 "현대 독일어에서 파생이나 합성으로 식별할 수 없고 비교적 폐쇄 범주를 형성"하며, 여기에는 아래 (17)의 단어들이 속한다고 보았다.

(17) a. an, auf,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zwischen
b. aus, bei, mit, nach, von, zu
c. bis, durch, für, gegen, ohne, um
d. während, wegen, trotz

위 (17a)에 속하는 부치사들은 3격과 4격, (17b), (17c), (17d)의 부치사들은 각각 3격, 4격, 2격을 지배한다. 또한 일차적 부치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동사, 형용사, 명사의 지배 하에 원래의 어휘적 의미를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문법화론과 직결된다.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의 단순 부치사와 비교했을 때, 이 유형이 부치사의 전형에 보다 걸맞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차적 부치사는 하나의 폐쇄범주를 이루며, 24개 중 21개가 3격 및 4격을 지배하고 *wegen*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치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Helbig/Buscha(2001)는 일차적 부치사에 속하는 것들을 제외한 단순 부치사를 모두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이차적 부치사로 간주한다.

3.1.2.2 이차적 부치사

Helbig/Buscha(2001)가 정의하는 이차적 부치사(sekundäre Präpositionen)에는 앞선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의 분류에서 하나의 범주를 이뤘던 전치사적 단어결합들이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이 부치사들은 일차적 부치사들과 달리 대부분 명사를 2격 지배하면서 다른 품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개방범주를 이뤄 새로운 부치사의 유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Helbig/Buscha(2001)는 이차적 부치사의 하위 범주로 아래 A ~ D의 네 가지 부류를 들고 있다.

A. 다른 품사에서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은 단어들: 여기에는 *dank, kraft* 등 하나의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들과 더불어 *ausgenommen, unweit* 등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분사, 형용사 등)의 형태와 동일한 단어들이 속한다. 추가적인 예시로는 *gemäß, lang, laut, entsprechend, ungeachtet* 등이 있다.

B. 다른 품사에서 파생을 거친 단어들: 이들은 각자 어원을 두는 품사의 뒤에 접미사 '*-s*'나 '*-lich*'가 붙어 파생이 되어 부치사가 된 경우로, 여기에 속하는 부치사로는 *angesichts, betreffs, längs, mangels, mittels, namens, seitens, zwecks; abseits, diesseits, jenseits, abzüglich, anlässlich, einschließlich, hinsichtlich, vorbehaltlich* 등이 있다.

C. '부치사 + 명사' 구조에서 협착을 거친 단어들: 이 단어들은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 표현이 한 단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앞서 <표 3>에서 언급되었던 두 종류의 부치사들을 포함한다.

D. '부치사 + 명사'의 구조를 가지는 단어군: 이들 표현은 위 세 부류의 단어들과 달리 하나의 단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단일어인 부치사를 대신하여 명사와 사태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치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이들 표현의 예시로는 *auf der Basis, aus Anlass, in Anbetracht, mit Ausnahme, unter Anwendung, zum Nachteil* 등이 있다.

3.1.3 Lindqvist(1994)

Lindqvist(1994)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연속적인 부류들로 부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형이론(Prototypentheorie)에 기반하여 부치사를 분류하였다. 그는 부치사가 전형적으로 가지는 8가지 특징들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부치사들 중에서 가장 부치사다운 표현들을 이상적 부치사(Idealpräpositionale)[30]라 하였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vgl. Lindqvist 1994: 306).

A. 격 지배: 독일어의 이상적 부치사는 3격 및 4격을 지배한다. 이

[30] 이 때 Präposition이 아니라 Präpositionale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어휘적, 문법적 자질과 상관없이 부치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지배관계는 결합체 안에서 명시적이다. 예를 들어 *mit*은 3격을, *aufgrund*는 2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mit*이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B. 분포: 이상적 부치사는 하나의 단위만을 지배하며 그 앞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전치사 *mit*이 환치사 *um … willen*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C. 표현: 이상적 부치사는 짧고 표현 측면에서 계열 내 다른 원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it*은 음운론적으로도 짧고 계열 내 다른 원소(z. B. *in*, *auf*, *nach* usw.)와 결합할 수 없지만, *bei / von / vor / zu Beginn*은 형태적으로 드러나듯 여러 가지의 부치사와 연결될 수 있으며 표현이 비교적 길다. 따라서 전자가 후자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D. 통사적 기능: 이상적 부치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auf*는 *anhand*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한데, 전자는 전치사적 목적어(z. B. *sie warten auf ihn*)와 부사어(z. B. *er steht auf dem Stuhl*)를 이끌 수 있는 데 반해 후자는 부사어(z. B. *anhand eines Beispiels zeigte sie, dass…*)만 이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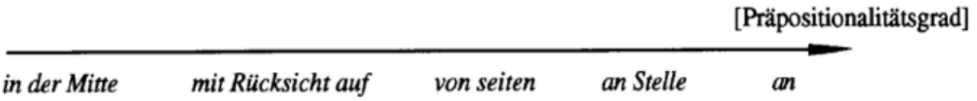
E. 의미적 기능: 이상적 부치사는 의미적으로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auf*는 장소(z. B. *auf der Bank*), 시간(z. B. *auf ein paar Tage*), 양상(z. B. *auf elegante Art*)의 의미는 물론 의미가 없는 경우("leere" Bedeutung; z. B. *er wartet auf ihn*)도 있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에 다양한 명사구 앞에 위치할 수 있지만, *zu Ehren*은 단일한 의미를 지녀 사람을 나타내지 않는 명사구 앞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auf*는 *zu Ehren*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F. 논항구조: 이상적 부치사는 두 개의 명사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die Brille auf dem Tisch* 내의 *auf*는 "*Er kommt nicht wegen des schlechten Wetters.*"의 *wegen*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G. 형태: 이상적 부치사는 내적 의존구조(Dependenzstruktur)를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n*은 *im Widerspruch zu*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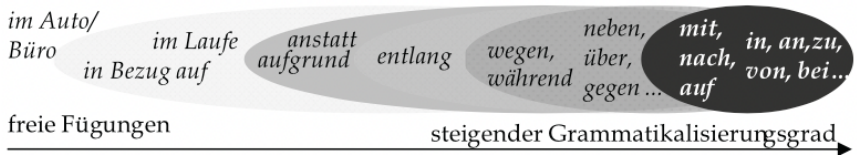
H. 표기: 이상적 부치사는 소문자로 된 한 단어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an*이 *von seiten*이나 *im Laufe*보다 이상적 부치사에 더 근접하다.

Lindqvist(1994)는 위 8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부치사들을 평가하여 이상적 부치사와 가까운 정도를 부치사성(Präpositionalität)이라 부르고 이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부치사화(Präpositionalisierung)[31]라 하였다. Lindqvist(1994)는 부치사들이 가지는 상이한 부치사성에 따라서 몇 개의 범주로 구분짓지 않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서열척도(Ordinalskala) 상에 다양한 부치사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분포하는지 나타내었다.



<그림 1> *in der Mitte, mit Rücksicht auf, von seiten, an Stelle, an*의 부치사성에 따른 부치사들의 분포 (vgl. Lindqvist 1994: 307)

위 <그림 1>은 그림에 제시된 5가지의 부치사들 간의 부치사성을 비교한 것일 뿐, 독일어 부치사 전반에 대해서 부치사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독일어 부치사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척도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Szczepaniak(2009: 93ff.)이 진행했는데, 상술한 이상적 부치사의 특징에 기반하여 보다 다양한 부치사들의 부치사성을 아래 <그림 2>처럼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내었다(vgl. Szczepaniak 2009: 97).



<그림 2> 독일어 부치사에서 핵심과 주변을 이루는 것들의 문법화 정도 (vgl. Szczepaniak 2009: 97)

상술한 세 가지 부치사의 분류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우선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은 부치사의 형태 및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단순 부치사, 복합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 나누었다. 단순

[31]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은 다른 품사나 단어결합이 부치사로서의 기능을 얻는 것을 문법화의 일종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부치사화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때의 부치사화는 Lindqvist(1994)의 부치사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으로 쓰였다.

부치사는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진 부치사, 복합 부치사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로 나타나는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부치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군을 가리킨다.

Helbig/Buscha(2001)는 일차적 부치사와 이차적 부치사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 이전의 분류보다 형태적으로 더 자세한 구분을 하여 조어방식에 따른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일차적 부치사는 일상언어에서의 부치사의 전형을 띠고 있는 것만을 가리키고, 이차적 부치사에는 4가지의 하위 분류를 두었다. 다른 품사의 단어에서 전환 및 파생을 거친 부치사들, 부치사구가 협착을 거친 단어(군), 그리고 협착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치사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단어군이 그 4가지이다.

Lindqvist(1994)는 앞선 두 분류와는 다르게 원형이론에 기반하여 부치사를 조망하였다. 그는 부치사를 대표하는 특징들을 크게 격 지배, 분포, 표현, 통사적 및 의미적 기능, 논항구조, 형태, 표기의 8가지 측면에서 기술하면서 모든 특징을 갖는 이상적 부치사와 근접한 정도에 따라 부치사들을 평가하여 하나의 서열척도 위에 나열하였다. Lindqvist는 개별 부치사들의 부치사성을 판단했을 뿐, 하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zczepaniak(2009)은 Lindqvist의 부치사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모든 부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를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3.2 문법화 분석 대상으로서의 부치사 분류

본고에서 중심적인 분석 틀로 사용할 문법화론의 대상으로는 Lindqvist(1994)의 부치사 분류가 가장 근접해 보인다. 이 분류는 부치사화를 척도로 활용하여 부치사들을 평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기준으로 부치사들의 문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본고의 논의 방향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부치사를 우선 형태론적 관점에서 크게 단일 부치사와 복합 부치사로 나눈다. 단일 부치사는 하나의 어휘소를 가진 부치사이며 복합 부치사는 두 개 이상의 어휘소로 이뤄진 부치사를 가리킨다. 이 두 분류는 다시 단어의 형성 방식에 따라 전자는 기본 부치사와 파생 부치사로, 후자는 합성 부치사와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 나뉜다.

우선 단일 부치사 중 기본 부치사는 공간 부사에 그 기원을 두어 단일 어휘소로 이뤄진 부치사로, *an, von, mit*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 부치사는 독일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며, 많은 연구에서 부치사의 전형으로 다뤄진다. 단일 부치사 중 파생 부치사는 부치사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품사로부터의 파생을 거친 것으로, *wegen*[32], *entsprechend*, *kraft*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때 '파생'이라 함은 한 단어가 파생 접미사와 결합하는 것과 더불어 형태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품사 변환을 일컫는 전환 현상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복합 부치사 중 합성 부치사는 두 개의 어휘소, 구체적으로는 기본 부치사와 명사로 구성된 부치사로, *anhand*나 *anstelle/an Stelle* 등을 포함한다. 이 부치사들은 띄어쓰기로 분리되었던 두 단어가 협착을 거쳐 형성되었고, 일부 부치사들의 경우 띄어쓰기를 유지한 채로도 사용된다.[33] 복합 부치사 중 전치사적 단어결합[34]은 형태적으로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뤄진 구절이지만 기능은 여타 부치사들과 동일한 것으로, *auf der Basis*나 *aus Anlass*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분류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분류		예시
단일 부치사	기본 부치사	an, zu, von, aus, mit, für, usw.
	파생 부치사	wegen, kraft, während, entsprechend, kraft, usw.
복합 부치사	합성 부치사	anhand, anstelle/an Stelle, usw.
	전치사적 단어결합	auf der Basis, aus Anlass, usw.

<표 4> 문법화 분석 대상으로서의 부치사 분류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방법은 부치사의 전반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부치사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32] Helbig/Buscha(2001)는 *wegen*과 더불어 *trotz*와 *während*를 일차적 부치사로 분류했지만, 이들은 부사가 아닌 명사나 동사 등 다른 품사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파생 부치사로 분류된다.

[33] <표 3> 참조.

[34] 부치사적 단어결합 대신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 부르는 것은 이 유형에 속하는 부치사들이 모두 전치사처럼 사용되고 결합체 안의 부치사도 전치사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굳이 생소한 표현인 부치사적 단어결합이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대표성에 기반하여 부치사의 전반적인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위 <표 4>에 나타난 부치사의 분류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하위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개별 부치사의 용례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며, 어휘성과 문법성의 양극단에 부치사들이 놓인다면 대부분이 문법성과 매우 가까운 쪽에 위치할 것이라고도 한다(u.a. Heine et al. 1991; Di Meola 1994; Matsumoto 1998; Hopper/Traugott 2003, Rhee 2003, 2021; Lehmann 2015). 따라서 본고에서 기본 부치사의 하위유형을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문법화 분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위유형 분류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본 연구는 기본 부치사의 경우 이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 전치사적 목적어(Präpositionalobjekt)[35]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치사적 목적어란 기본 부치사의 문법화가 더욱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부치사구가 특정 동사의 목적어로서의 논항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36] 이 때 이 부치사구를 유도하는

---

[35] Präpositionalobjekt를 '부치사적 목적어' 대신 '전치사적 목적어'로 명명한 까닭은, 이 용례에서는 오로지 전치사만 쓰이기 때문이다.

[36] Hundt(2001)는 이들의 대표적인 5가지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vgl. Hundt 2001: 171ff.).
A. 의무성: 전형적인 전치사적 목적어는 문장의 표층구조(Oberflächenstruktur)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일례로 동사 *rechnen*은 '계산하다'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수의적 보족어(fakultative Ergänzung)로 삭제될 수 있지만, '기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mit etw. rechnen*의 구조 내에 있는 전치사적 목적어(*mit etw.*)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아예 동사의 필수적 보족어로 실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z. B. *auf etw. beruhen*).
B. 부치사의 의미 감소: 전치사적 목적어 내에 있는 부치사는 일반적인 부사어로 쓰였을 때와 다르게 명확하고 뚜렷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3.1.3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부치사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Er wartet auf sie.*"의 *auf*나 "*Ich denke oft an Piroschka.*"의 *an*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통사적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C. 불변성(Präpositionskonstanz): 전형적인 전치사적 목적어는 오직 하나의 전치사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만약 하나의 동사가 전치사를 달리하는 전치사적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치사적 목적어 뿐 아니라 동사의 의미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일어 동사 *bestehen*은 전치사 *auf*와 결합하면 '(권리)를 주장하다'의 의미를 가지지만, 전치사 *aus*와 결합하는 경우 '~로 구성되다'의 뜻을 지니게 된다.

부치사는 특정 동사에 결부되어 고정적으로 사용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치사를 앞으로 'PO-P'라 부르도록 한다.

파생 부치사는 개별 부치사가 어떤 품사로부터 파생되었는가에 따라 명사 파생 부치사, 동사 파생 부치사 그리고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의 세 가지 하위분류로 나뉘며, 이는 Lehmann/Stolz(1992)와 Di Meola(199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명사를 기반으로 하여 접미사 *-s*나 *-lich*를 통해 파생되거나 동일한 형태로 전환된 부치사를 지칭한다.[37]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동사의 분사형태, 그리고 형용사 및 부사에서 유래한 부치사로, 품사의 전환이 이뤄진 경우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위한 대표적인 부치사로는 각 유형의 언급 순서대로 코퍼스 상에서 최고빈도로 나타나는 *wegen, während, gegenüber*를 선정하였다.[38]

합성 부치사는 개별 부치사의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 협착 합성 부치사와 결합적 합성 부치사로 나뉘며, 각 유형은 앞서 3.1장에 제시된 <표 3>의 (i)과 (ii)에 대응한다. 협착 합성 부치사는 기본 부치사와 명사가 협착을 통해 한 단어가 된 것들을 지칭한다. 결합적 합성 부치사는 협착 합성 부치사와 마찬가지로 기본 부치사와 명사로 구성되지만 한 단어로도 표현기도 하면서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D. 격 목적어(Kasusobjekte)와의 병용 가능성: 일부 전치사적 목적어는 격 목적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Er schreibt seinem Kollegen.*"의 *seinem Kollegen*은 *an seinen Kolleg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때 많은 경우 명사의 격은 바뀔 수 있으며,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E. 대명부사화 가능성: 전치사적 목적어는 많은 경우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da(r)-*, *wo(r)-*와 결합하여 대명부사로 변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r freut sich auf den Urlaub.*"의 전치사적 목적어는 *darauf*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치사적 목적어는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동사가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치사구처럼 *dort*, *dann* 등의 일반부사로 대체할 수 없다.

[37] 특정 명사에 해당 접미사가 붙는다고 해서 모두 명사 파생 부치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 부치사 중 *beiderseits*나 *bezüglich*는 현대 독일어에서 각각 부사와 형용사로서의 용례를 보이기 때문에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로 간주된다. 반면 *mittels*의 경우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전치사로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에 기반을 두어 부치사로 파생된 단어로 간주한다.

[38] 이들은 DWDS(Digital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내의 코퍼스 상에서 함수식 "Count($p=APPR=1) #by[$l] #DESC_Count"을 검색한 후, 그 결과 유형별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었다. 합성 부치사의 하위유형의 대표적 부치사를 선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형태적으로 전치사적 단어결합과 비슷한 것들이다. 각 유형의 대표적 부치사로는 순서대로 *anstatt*와 *aufgrund/auf Grund*를 선정하였다.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개별 결합체가 보족어를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느냐에 따라 직접 및 간접 지배 단어결합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39] 본고에서는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하위유형은 두지 않고 문법화의 정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기본 부치사와 명사의 조합은 문법적이며 관습적인 구조를 띠며, 이 구조는 생산성이 높다. 이는 곧 해당 계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법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vgl. Lehmann/Stolz 1992: 28).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유형을 부치사 내에서 문법성이 가장 낮은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여 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표 4>의 독일어 부치사 분류를 세분화한 결과와 각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를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분류		하위 분류	예시
단일 부치사	기본 부치사(PO-P)		auf, von, mit
	파생 부치사	명사 파생 부치사	wegen
		동사 파생 부치사	während
		형용사/부사 파생 부치사	gegenüber
복합 부치사	합성 부치사	협착 합성 부치사	anstatt
		결합 합성 부치사	aufgrund / auf Grund
	전치사적 단어결합		im Wege, in Bezug auf

<표 5> 문법화 분석 대상으로서의 부치사의 세분화

[39] 직접 지배 단어결합은 *im Verlauf*처럼 의미상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인 명사가 보족어에 대해 문법적 지배력을 지닌 것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모두 2격을 지배한다. 반면 후자는 *in Bezug auf*와 같이 명사는 자신의 어원인 동사가 보족어로 가지는 부치사구를 이끄는 기본 전치사를 통하여 보족어를 지배하는 경우이다.

4.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4장에서는 3.2장에서 제시한 부치사의 분류를 대상으로 문법화의 진척 정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4.1장부터 4.4장까지 각 장의 논의는 우선 <표 4>에 제시된 부치사의 형태론적 분류를 참고하여 문법화의 기제가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표 5>에서 제시한 <표 4>의 하위분류의 대표적 예시로 선정한 개별 부치사에 대하여 Lehmann(2015)의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적용해 해당 부치사의 문법화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보도록 한다. 문법화 정도의 분석 작업은 2.1장에서 제시된 순서, 즉 온전성, 구조적 범위, 계열성, 결합성, 선택가능성, 위치자유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된다.

각 장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예문에 제시된 자료는 주로 DWDS 내의 Referenzkorpora에 속하는 세 가지 코퍼스에서 가져왔으며, 이들은 1900년대 언어자료를 담고 있는 DWDS-Kernkorpus(DK), 21세기의 첫 10년 자료를 보유한 DWDS-Kernkorpus 21(DK21), 그리고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초의 문헌 자료를 제공하는 DTA-Kernkorpus(DTK)를 포함한다. 단어들의 의미나 형태 변화를 알아볼 때에는 Duden사의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1993)와 Jacob Grimm/Wilhelm Grimm의 *Deutsches Wörterbuch*(1971)를 참고하였으며, 각각 GW와 DW로 약식 표현하였다.

4.1 기본 부치사

우선 기본 부치사에는 *ab, an, auf, aus, bei, bis, durch, für, gegen, hinter, in, mit, nach, neben, ohne, seit, über, um, unter, von, vor, zu, zwischen* 등 총 23개가 있으며,[40] 이들은 하나의 폐쇄 범주를 이룬다. Lindqvist(1994)가 제시한 이상적 부치사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기본 부치사는 모두 3격과 4격을 하나씩 지배하거나 두 가지를 같이

[40] Di Meola(1994)는 '~에 맞서'라는 뜻을 가지는 부치사 *wider*를 이전의 형식으로 재구할 수 없는 기본 부치사(primäre Präposition)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Wöllstein/Dudenredaktion(2016)에 따르면 *wider*는 사어화의 과정을 겪는 고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지배하며 자신의 보족어의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에 속하여 가장 대표적인 부치사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들은 부치사들 중 문법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치사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상술했듯이, 기본 부치사는 *für, mit, ohne, seit*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래 공간관계를 나타내며, 공간을 나타내는 부치사들은 시간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된다.[41] 이는 (13)에 제시된 Heine et al.(1991)의 개념 범주의 위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되는데, 공간은 시간의 상위범주이기에 공간 부치사로 시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치사 *seit*는 의미상 "지속적인 상태 혹은 사태가 시작한 시점이나 시기"를 표현하는 데에만 쓰이며,[42] 공간적 개념을 표현해내지는 못한다. Lakoff/Johnson(2003)은 이렇게 공간 부치사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공간은유(Raummetapher)의 한 양상으로 간주하였고, Lakoff/Turner(1989)는 이를 근원 영역(Quelldomäne)에서부터 목표 영역(Zieldomäne)으로의 은유적 투사(metaphorische Projektion)가 일어난 것이라 말한다.

공간 부치사로 다른 은유적 의미를 표현하는 독일어 부치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 부치사 *in*은 한 공간의 '내부'나 목표로의 '지향성'을 뜻하는데, 시간의 문맥에서도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부치사 *in*은 공간관계에서 하나의 위치(Standpunkt)가 아니라 3차원 공간의 내부를 지칭하듯, 시간관계에서도 특정 시점(Zeitpunkt)이 아닌 일정한 시간대(Zeitraum)를 보족어로 둔다는 점도 특기 할 만하다. 이렇게 부치사 *in*은 아래 (18)의 예시들처럼 시간 뿐만 아니라 양상이나 상태 등의 다양한 개념 영역으로까지 은유적 투사를 통해 확장되었다.

(18) a. Der Schlüssel ist *in der Tasche*.
b. Wir fahren *in die Stadt*.
c. *In diesem Sommer* hat es viel geregnet.
d. Sie feierten bis *in den frühen Morgen*.
e. Er war *in Schwierigkeiten*.

---

[41] Haspelmath(1997)는 세계의 53개 언어를 조사한 결과, 범언어적으로 품사와 상관없이 공간적 표현이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42] [DW] **seit** … **I.** (Präp. mit Dativ) dient zur Angabe des Zeitpunkts, zu dem, od. der Zeitspanne, bei deren Beginn ein noch anhaltender Zustand, Vorgang begonnen hat.

위 (18)에서 제시된 쓰임 이외에도 기본 부치사는 상술했듯이 동사의 전치사적 목적어를 이끄는 역할도 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 본래 기본 부치사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특정 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장 "*Ich warte auf meine Mutter auf dem Bahnhof.*"에서 *auf meine Mutter*는 동사 *warte*의 전치사적 목적어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동사의 논항을 차지하는 수의적 보족어에 해당된다. 반면 *auf dem Bahnhof*는 자유결합으로 나타난 부치사구로, 문장을 비문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생략 가능한 첨가어이다.

그렇다면 전치사적 목적어와 동사의 보족어로서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 없는 부치사구, 즉 부사적 보족어(adverbiale Ergänzung)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전치사적 목적어의 경우, 동사의 의미에 따라 PO-P도 상응하여 바뀌지만, 부사적 보족어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19a)와 (19b) 두 문장에 사용된 동사 *besteht*의 의미는 서로 완전히 다른데, 이는 각각의 PO-P에 따라 식별 가능하다. (20)의 두 문장에서는 부치사의 공간적 의미가 유지되어 거주 장소만 바뀔 뿐, 동사의 의미는 동일하다.

(19) a. Er besteht *auf seinen Rechten.*
b. Das Puzzle besteht *aus vielen Teilen.*

(20) a. Sie wohnt *auf dem Land.*
b. Sie wohnt *in Berlin.*

이렇듯 전치사적 목적어는 자신을 지배하는 동사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어떤 경위로 인해 특정 동사와 그에 맞는 부치사가 결합되었는가이다. 한 가지 타당한 설명은 그 과정에서 부치사의 의미가 환유를 통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21)에 나오는 DW의 *teilnehmen*에 대한 정의를 보자.

(21) **teilneh|men** <st. V.; hat> [mhd. teil nemen, ahd. teil neman]:
1. *bei etw. dabeisein* … **2.** *Anteil nehmen, teilhaben*

동사 *teilnehmen*의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의 근처에 있다'로, 대상과 근접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두 번째 정의는 각괄호 안에 기술된 중고지독어(Mittelhochdeutsch; mhd.) 및 고고지독어(Althoch-deutsch; ahd.)에서의 쓰임새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일부를 취하다'이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상과의 거리가 인접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정의로부터 동사 *teilnehmen*이 어딘가에 근접한 상태를 본질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근접성은 대상과의 "위치, 근접, 접촉"[43]을 나타내는 부치사 *an*과 접점을 가지고 이에 기반하여 *an*이 *teilnehmen*의 목적어로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근접성'이라는 인접성에 따른 환유에 기반하여 부치사 *an*이 PO-P로 문법화가 이뤄진 것이다.[44]

지금까지 기본 부치사가 전치사적 목적어를 유도하는 기능을 얻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기제인 은유 및 환유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전치사적 목적어에서 관찰 가능한 문법화의 양상과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 부치사는 자신의 의미적 온전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전치사적 목적어를 이끌게 되었고, 이는 전치사적 목적어와 관련하여 탈의미화가 일어났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음운론적 축소나 형태론적 퇴화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유결합에서와 동일한 음운론적 및 형태론적 자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5)에서 보여진 것처럼 부치사와 관사가 융합했을 때 관사의 음절이 축소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사의 영역이며, 혹시라도 부치사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전치사적 목적어에 국한되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전치사적 목적어의 구조적 범위는 자유결합 부치사구보다 줄어든다. 아래 (22)의 문장에서 *auf den Anpfiff*는 동사 *warten*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동사까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자유결합 *auf dem Fußballplatz*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에까지 구조적 범위를 갖는다. 이는 *auf dem Fußballplatz*를 다른 부사(z. B. *dort*)로 변환해도 동일한 범주를 갖는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

[43] Duden 온라인 사전에서 *an*의 의미 중 하나로 다음의 의미가 있다. "I.b. <mit Dativ> zur Angabe der Lage, der Nähe, der Berührung o. ä."

[44] 이 때 *an*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bei*가 왜 선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bei*는 Duden 온라인 사전에서 "I.a. zur Angabe der Nähe, der losen Berührung u. Ä.; in der Nähe von jemandem, etwas; nahe"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접촉'보다는 대상의 '근처'라는 의미가 더 중심적이기 때문에, *teilnehmen*과 결합되는 것이 *an*보다는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22) Hinze/Köpcke 2011: 61

Die Spieler warten auf dem Fußballplatz *auf den Anpfiff*.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목적어의 계열성은 증가하는데, 이는 자유결합에서 전치사적 목적어로 넘어오면서 계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45] 물론 Lehmann(2015)이 언급했듯이 계열의 단순한 크기로 계열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본 부치사와 같이 범주의 폐쇄성이 높은 경우 계열의 크기에 따라 문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계열의 동질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 계열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은 동사의 논항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는 기본 부치사의 계열에서는 없던 것이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목적어와 이를 보족어로 삼는 동사의 긴밀도는 자유결합보다 높아지게 된다. 결합체 내에서 긴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결합체 내에 다른 기호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을 뜻한다. 이를 유념하여 아래 (22')의 예문들을 보자. (22'a)는 동사가 마지막에 오는 독일어의 심층구조(Tiefenstruktur)를 이루는데, 이 때 동사의 보족어인 전치사적 목적어 *auf den Anpfiff*가 동사의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22'b)의 경우 보족어와 동사 사이에 양상부사 *geduldig*이 삽입됨으로써 문장이 어색해지게 되었다.

(22')a. …, dass die Spieler auf dem Fußballplatz *auf den Anpfiff* warten.

b. ??…, dass die Spieler auf dem Fußballplatz *auf den Anpfiff* geduldig warten.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목적어의 선택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는 특정 동사가 필요로 하는 부치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ch freue mich auf meinen Geburtstag.*"에서 *auf* 대신에 *an*을 쓴다면 해당 문장(**Ich freue mich an meinen Geburtstag.*)은 비문이 될 것이다. 물론 *sich freuen*은 *auf* 이외에도 *über*를 통해 목적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상술했듯이 그 경우 문장의

[45] 23개의 기본 부치사들 중 *bis, hinter, neben, ohne, seit, zwischen*은 전치사적 목적어를 이끌지 못하고, 나머지 17가지의 부치사들만 가능하여, PO-P로 나타날 수 있는 기본 부치사의 개수는 본래보다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의미가 달라지기에 기호의 의무성이 약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전치사적 목적어의 위치는 자유결합보다 제약이 있어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 위치자유도는 감소한다. Pittner/Berman(2015)은 중장(Mittelfeld) 내에서 나타나는 부사어의 순서[46]를 제시하였는데, 이 때 부사적 보족어로 나타나는 방향 부사어는 중장의 맨 마지막, 즉 우측 괄호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를 참고하여 (22'')의 문장들을 보면 (22''a) 에서 *auf den Anpfiff*는 *warten*의 논항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부사적 보족어와 비슷하게 간주되고, (22''b)는 부사어의 순서가 뒤바뀌어 어색한 문장이 된다.

(22'') a. Die Spieler haben auf dem Fußballplatz *auf den Anpfiff* gewartet.
b. ??Die Spieler haben *auf den Anpfiff* auf dem Fußballplatz gewartet.

4.2 파생 부치사

파생 부치사는 용어 그대로 다른 품사에서 특정한 방식을 거쳐 부치사의 범주로 편입된 단어들을 가리키며, 기본 부치사와 마찬가지로 단일어로 이뤄져 있다. 파생 부치사는 많은 경우 보족어를 2격으로 지배하며, 이는 Lindqvist(1994)의 부치사성의 첫 번째 판단기준인 격 지배 측면에서 이상적 부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파생 부치사가 본래에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내용어로부터 출발하여 부치사라는 기능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파생 부치사는 재분석이 문법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데, '~에 따라서'라는 의미의 부치사 *kraft*의 예시를 보도록 하자. 부치사 *kraft*는 단어결합 *in Kraft*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Lehmann/Stolz(1992: 31)는 *in Kraft*가 15-16세기에서부터 2격과 함께 쓰였으며((23a)) 18세기를 거치면서 더 대중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46] Sprechakt-Adverbiale > propositionsbezogene Adverbiale > situationsbezogene Adverbiale > situationsinterne Adverbiale > prozessbezogene Adverbiale (vgl. Pittner/Berman 2015: 152)

하였다. 즉, 이미 이전에도 전치사적 단어결합과 비슷하게 쓰인 것이다. 실제로 그런 쓰임은 보였지만, 아래 (23b)처럼 관사와 함께 쓰이면서 *Kraft*가 복수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23c)와 같은 *in Kraft*와 2격 명사의 구조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23d))의 부치사 *kraft*의 쓰임으로 이어졌다.

(23) a. Vnd zum allerletzten/ wirdt *in Krafft deß Herrn Privilegien* der Züchtiger oder Nachrichter/ gegen männiglichs Frefel vnnd Muhtwillen/ befreyet vnd versichert.
(Becke, Berthold von der: Soldaten-Spiegel. Frankfurt (Main), 1605.)
b. (…) denn es bleibet nicht *in den Kräfften der Seelen*/ sondern ist verborgen im innersten grunde/ vnnd wesen der Seelen. […]
(Arndt, Johann: Vom wahren Christenthumb. Bd. 3. Magdeburg, 1610.)
c. Der Eigentumsübergang hat schon vorher stattgefunden *in Kraft des Enteignungsausspruches* unmittelbar.
(Mayer, Otto: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2. Leipzig, 1896.)
d. *Kraft des Gesetzes* steht ihm eine Rente zu.
(DWDS-Wörterbuch)

구명철(2015: 127)에 제시된 재분석의 도식을 참고하여 (23)의 예문들과 함께 논의된 *kraft*의 재분석 과정을 보이면 아래 (24)와 같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부치사로는 *statt*가 있는데, *statt*의 경우는 이전에 같이 쓰이던 부치사 *an*과 협착을 이뤄 *anstatt*라는 합성 부치사를 형성한 이후 *an*이 탈락하여 현대의 형태를 얻게 되었다. 반면 단어결합 *in Kraft*가 *inkraft*로의 협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kraft*로 변한 점은 특기할 만 하며, 이는 *zum Trotz*가 *trotz*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4) a. [in [der Kraft N_{Gen}]]
b. [in [Kraft N_{Gen}]]
c. [kraft] [N_{Gen}]

파생 부치사의 경우에 개별 부치사가 보족어로 삼을 수 있는 명사는 의미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법화의 기제 중

하나인 유추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앞선 재분석의 논의에서 사용한 *kraft*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부치사 *kraft*와 함께 쓰이는 명사들은 대부분이 법과 같은 사회적 약속이나 지위와 관련된 것들이다.[47] 이는 Duden 온라인 사전이 제시하는 *Kraft*의 첫 번째 의미인 '영향력을 가지는 힘이나 능력, (물리적 및 관념적) 영향력'[48]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리적 운동으로 가해지는 힘을 제외하면 개인에게 구속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형태적으로는 유추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부사의 조어 과정에 기여하는 독일어 명사의 2격 접미사 *-s*나 형용사 파생 접미사 *-lich*와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파생 부치사의 경우가 그렇다. Lehmann/Stolz(1992: 20)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관계 명사(relationales Substantiv)[49]에 명사 2격 접미사 *-s*가 붙는 경우, 필연적으로 해당 명사와 의미적으로 관계가 있는 명사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부치사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파생 부치사에는 *angesichts, mittels, zwecks* 등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lich*의 경우, 일부 특정 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에 붙어 부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bzüglich, bezüglich, zuzüglich*에는 *Zug*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DTK 상에서 검색해 보면 *abzüglich*와 *bezüglich*가 비슷한 시기에 발견되는데, *bezüglich*가 초기에는 어원인 명사 *Bezug*이 목적어로 갖는 *auf*와 함께 쓰이다가 점차 현대와 같이 2격 지배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발견되는 *abzüglich*는 *von*과의 결합 없이 바로 2격 지배를 하며, *zuzüglich*도 마찬가지이다. 즉, *abzüglich*과 *zuzüglich*는 자신들과 비슷한 어원(*Zug*)을 갖는 *bezüglich*의 사례를 유추모델로 삼아 부치사로의 변화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vgl. 신용민 2018: 81f.).

지금까지 파생 부치사에 작용하는 문법화의 기제에 대하여 다뤄보았

---

[47] DK에 "Count("$l=kraft=1 #1 $p=N*=2") #by[$l=2] #DESC_Count"를 검색하여 사용 빈도에 따라 *kraft*와 함께 쓰이는 명사들을 추출한 결과, 상위 10개에 *Gesetz, Amt, Stellung, Autorität, Recht, Eintragung, Artikel, Wesen, Auftrag, Eigenschaft*가 자리하였다.

[48] Vermögen, Fähigkeit zu wirken; [körperliche oder geistige] Stärke

[49] Seiler(1980: 88ff.)는 명사를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코, 일' 등 다른 개체와의 관계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명사, 다른 하나는 그런 관계성을 요구하지 않는 절대 명사이다(vgl. 구명철 2004: 175).

고, 이제 파생 부치사의 하위 분류에서 일어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2.1 명사 파생 부치사

명사 파생 부치사에는 명사를 기반으로 하여 *wegen, laut, trotz, kraft* 등 명사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부치사의 범주에 편입된 것들, *angesichts, mittels, hinsichtlich, einschließlich* 등 명사에 접미사 *-s*나 *-lich*가 결합하여 부치사를 형성한 것들이 속한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표하는 부치사로 *wegen*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wegen*은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기본 부치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온전성을 크게 상실하였다. 부치사 *wegen*은 본래 '장소, 방면'의 뜻을 가진 중고지독어 *wec*의 복수형이 *von*과 2격 명사구와 같이 쓰여 '~쪽의' 라는 의미를 지니는 구조로 쓰였다. 하지만 점차 *wegen*이 탈의미화를 거쳐서 '~를 고려하여', 나아가 현대의 의미인 '~때문에'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발전하여 더 보편적인 대상을 보족어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vgl. Szczepaniak 2009: 98ff.).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wegen*의 구조적 범위는 다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von* $NP_{Gen.}$ *wegen*의 구조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 현대 독일어의 구조인 *wegen* $NP_{Gen.}$로 되어 단어들의 어순이 바뀌었다. *wegen*이 이전에는 $NP_{Gen.}$의 수식을 받는 일종의 관계명사였다면 부치사로의 발달 이후에는 오히려 명사구에 대한 문법적 지배력을 끼치는 기호가 되어 구조적 범위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wegen*의 경우 계열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wegen*은 다른 명사 파생 부치사들과 달리 구어체에서 2격보다 3격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다. GW에 제시된 *wegen*의 설명[50]에서는 강변화 명사의 경우 단수 원형 혹은 복수 3격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적인 명사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wegen*의 기본 부치사, 즉 원형적 부치사로서의 계열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50] [GW] **wegen** <Präp. mit Gen.: bei alleinstehendem st. Subst. im Sg. auch mit unflekt. Form bzw. im Pl. mit Dativ; sonst nicht standardspr. mit Dativ>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wegen*의 결합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wegen*의 원형인 *von* $NP_{Gen.}$ *wegen*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wegen*의 어휘적 의미는 다소 희석됨으로써 의미적인 핵심은 $NP_{Gen.}$로 이동하고, 이 구조의 문법적 주도권은 *von*과 *wegen*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어 환치사 *von … wegen*이 형성된다. Braunmüller(1982: 205)에서 언급되었듯이 단일어화의 경향에 따라 환치사는 복합 부치사로, 종국에는 기본 부치사 *von*이 탈락하여 지금의 *wegen* $NP_{Gen.}$의 형태로 남게 되었고(Szczepaniak 2009: 100), 이는 *wegen*과 $NP_{Gen.}$ 사이의 긴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아래 예문 (25)에서 볼 수 있듯, *wegen*은 *und*로 연결되어도 명사 앞에서 생략이 불가하다는 점 또한 높은 결합성을 보여준다.

(25) Daß ich *wegen* Ihrer und *von wegen* der Nachfrage nach Ihrem Befinden hergekommen bin.
(Karl Ferdinand Gutzkow: Die Ritter vom Geiste. [Band 1-3], Frankfurt a.M. 1998)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wegen*의 계열적 유동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wegen*은 보족어와 함께 문장 내에서 '원인'이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관계는 부치사 중에서 *wegen*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wegen*의 대안으로 합성 부치사 *aufgrund*나 *infolge*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wegen*보다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 후술하겠지만 전치사적 단어결합이 문법화를 이룬 기본 부치사로 대체될 수 있듯이, 오히려 *aufgrund*가 *wegen*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물론 기본 부치사가 *wegen*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 때는 맥락에 따라 올 수 있는 부치사가 달라진다.[51]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wegen*은 $NP_{Gen.}$의 바로 앞 혹은 뒤에 위치할 수 있지만, *wegen*이 후치사로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치자유도는 $NP_{Gen.}$의 앞쪽에 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1] 예를 들어 Koo(2012)는 *aus*와 *vor*가 동일하게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만, 이 둘은 주어의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aus*, 불가능하면 *vor*가 쓰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4.2.2 동사 파생 부치사

동사 파생 부치사는 동사의 분사형이 전환을 거쳐 부치사로 쓰이는 단어로, *während*와 *entsprechend* 같은 현재분사형과 *ungeachtet*나 *unbeschadet* 등의 과거분사형 모두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표하는 개별 부치사로 *während*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번 장의 논의를 이어간다.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während*는 의미 탈색이 이뤄져 의미적 온전성이 감소하였다. *während*는 본래 '어떤 상태에 있다, 지속되다,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 *währen*[52]의 현재분사형이며, 명사의 2격을 수식할 때에 주로 쓰였다. 그리고 이 때의 의미는 '~이(가) 지속되는'으로, 원래 동사가 가지던 어휘적 의미를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ährend*가 처음에는 대부분 전쟁이나 시간 명사를 수식했지만(z. B. *währendes Krieges*) 점차 탈의미화 과정을 거치면서 *Fahrt*, *Nacht*, *Schwangerschaft*처럼 활동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과 같이 쓰이는 부치사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während*의 구조적 범위도 *wegen*과 마찬가지로 다소 확장하였다. 상술했듯이, 부가적 용법의 현재분사 *während*의 경우 *währendes Krieges*이나 *währender Zeit* 등 명사 층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während*가 부치사로 발달한 후에는 명사구를 피지배소로 삼게 되면서, 구조적 범위가 명사에서 전치사구로 확장되었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während*의 계열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원래 *während*는 2격 명사구 내에서 부가적 용법의 현재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2격을 지배하는 부치사가 생겨났다. 그런데 앞선 *wegen*과 마찬가지로 구어체 한정이긴 하지만 3격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는 3격이나 4격을 지배한다는 Lindqvist(1994)의 이상적 부치사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이므로,[53] *während*의 계열성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2] [DW] **WÄHREN**, verb. IV, bestand haben, dauern, sich zeitlich oder räumlich ausdehnen.

[53] 그러나 무조건 3격을 지배한다고 해서 '이상적 부치사'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후치되는 부치사 *entsprechend*는 어원인 동사 *entsprechen*이 원래 3격 명사를 논항으로 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격을 지배한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während*는 보족어와의 긴밀도가 높아졌다. 현재분사 *während*는 아래 (26)과 같이 부사적으로도 쓰여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했고, *währender Zeit*에서는 명사와의 수식 관계만을 지니면서 수식하는 명사와 거리가 가까웠다. 부치사로서의 *während*는 지배하는 보족어의 핵어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z. B. *während der sozialen Krise des 3. Jahrhunderts*), 지배하는 내용어 없이는 독립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없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보족어와의 긴밀도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6) wie solten denn so viele menschen, aus welchen das gemeine wesen bestehet, *stets während* einerley lebens-art behalten?
(THOMASIUS kl. schriften 5)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während*는 계열적으로 선택의 제약에 놓이지만, 그 강도는 낮다. *während*가 나타내는 문법적 관계는 '특정 상태나 사건의 지속'이나 '기간 설정'인데, 이러한 구체적 관계는 *in*이나 *durch*로 동일하게 대체 가능하다. 즉, *während*가 있던 자리에 두 부치사 중 하나가 대신 위치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일반적인 부치사들처럼 *während*는 명사의 앞자리로 고정되어있다. 여기서 다른 동사 파생 부치사들을 보면, 류수린(2007)이 제시하였듯, *entsprechend, ausgenommen, betreffend, eingerechnet*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가지 부치사 모두 전치와 후치가 가능하며, 마지막 두 단어의 경우에는 전치사로 점차 고정되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4.2.3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는 형용사들과 부사들이 의미적인 빈자리를 가지다가 부치사처럼 쓰이는 결합이 많아지면서 부치사의 격 지배를 모델로 삼아 유추를 통하여 부치사로 발달한 것들을 지칭한다.

류수린(2007)은 독일어 분사형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entsprechend*가 전치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2격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entsprechend*의 문법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법화의 기제 중 유추가 작동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gegenüber*를 본보기 삼아 이 부류에 대한 문법화 현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gegenüber*도 탈의미화를 겪었다. DW에 따르면, 이 단어는 중고지독어 시기에 동일한 의미[54]의 *gegen*과 *über*가 함께 쓰이다가 협착된 형태이다.[55] 이 때 두 단어에는 '상대'나 '반대'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의미가 공통으로 존재하며, 탈의미화를 거치면서 이 의미가 남아 '타인이나 다른 대상과의 관계'[56]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gegenüber*의 구조적 범위는 줄어든다. *gegen*과 *über*는 16세기부터 *gegenüber*로 협착되어 쓰였지만 품사는 아직 부사였다. 18세기 이후부터 *gegenüber*가 지금의 부치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문장의 부사어 역할을 하는 *gegenüber*가 명사를 보족어로 삼는 기능어가 되어 구조적 범위가 문장에서 구 단위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gegenüber*는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품사로부터 유래하는 부치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부치사들을 본떠 문장 내에서의 위치를 그와 비슷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gegen … über*가 환치사의 형태로 부치사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16세기에 이미 협착을 이룬 *gegenüber*가 18세기에 후치사로 사용되고 19세기부터는 전치사로도 쓰이게 되었다(vgl. Lehmann/Stolz 1992: 35f.). 그럼에도 아직은 아예 전치사로 쓰이지는 않고 두 가지 위치 모두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열화가 아직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gegenüber*는 우선 기능어이기 때문에 내용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형태 측면에서의 결합성에 대해서 (27)의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7a)에서는 *gegen*과 *vber*가 *yhm*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 이후 (27b)에서 두 부치사는

---

[54] 시대는 다르지만, 현대의 Duden 온라인 사전을 보면 *gegen*(eine gegenläufige Bewegung; in entgegengesetzter Richtung; wider)과 *über*(kennzeichnet eine Lage auf der andern Seite von etwas)는 '~의 맞은편'라는 뜻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55] [DW] **Gegenüber**, s. sp. 2215 unter gegen, wo angeführt ist, wie ursprünglich, mhd. beide praep., gegen und über, schon für sich dieselbe bed. hatten (vgl. noch jetzt gerade über, und vor über u. 3, a), wie dann beide gesellt wurden, (…)

[56] bezeichnet die Beziehung zu einer Person oder Sache; zu, in Bezug auf die genannte Person, Sache (https://www.duden.de/node/140981/revision/1454271)

상호 간 긴밀도를 보이면서 분리된 채로 명사의 앞에 위치하였다.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gegen*과 *über*는 협착을 통해 한 단어가 되었고, (27c)에서처럼 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되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다른 부치사에의 유추를 기제로 하여 마지막 (27d)와 같은 용례도 생겨남에 따라 현대의 양치사(Ambiposition)[57] *gegenüber*가 되었다. 따라서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 *gegenüber*는 결합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gegenüber*의 형태적 발전과정을 아래 (28)과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된다.

(27) a. Der hawbtman aber der da bey stund *gegen yhm vber*/ vnd sahe/ das er mit solchem schrey den geyst auff gab/ ….

(Das Newe Testament Deutzsch. [Septembertestament.] Übersetzt von Martin Luther. Wittenberg, 1522.)

b. Dasselbe ist ein Kösnigreich im glücklichen Arabien / am Eingang deß rohten Meers / *gegen vber Morenland* / ….

(Abelin, Johann Philipp: Theatrum Europaeum, Oder Außführliche/ und Wahrhaftige Beschreibung aller und jeder denckwürdiger Geschichten. Frankfurt (Main), 1635.)

c. bey Luxemburg gefangen bekommen, und als er 2. Jahre hernach Stadt und Schloß Mümpelgard belagerte, auf einen Berg *dem Schlosse gegenüber* führen, ….

(Sommersberg, Friedrich Wilhelm von: Historischer und Genealogischer Schauplatz des Teutschen Reichs in gegenwärtigem Zustande. Breslau, 1730.)

d. Man sieht, daß die Quadranten SO und NW (Regelstellung) *gegenüber dem Gips* verkehrt, ….

(Raaz, Franz u. Tertsch, Hermann: Geometrische Kristallographie und Kristalloptik und deren Arbeitsmethoden, Wien: J. Springer 1939, S. 180)

(28) a. [gegen [$NP_{Dat.}$] über]

b. [gegen über] [$NP_{Dat.}$]]

c. [$NP_{Dat.}$] [gegenüber]

d. [gegenüber] [$NP_{Dat.}$]

[57] 양치사는 전치사와 후치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부치사를 일컫는 개념이다.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기존에 부사로도 쓰이던 *gegenüber*가 부치사로 쓰이게 되면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치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gegenüber*는 의무화의 과정을 다소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열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gegenüber*의 의무화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egenüber*가 기본 부치사 *gegen*과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위 예문과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gegen*과 *über*가 분리되어 사용될 당시에도 $NP_{Dat.}$는 *gegen*의 격 지배를 받았다. 이는 *gegen*의 강한 지배력을 나타내며, *gegenüber*는 *gegen*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gegenüber*는 전치사와 후치사 양단을 넘나드는 양치사에 속하기 때문에 위치자유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egenüber*가 후치사와 전치사로 쓰인 경우의 비율을 DK와 DK21에서 단순 비교를 한 결과, 전자에서는 1 : 6.3, 후자에서는 1 : 12.8의 값을 얻었다.[58] 이는 곧 21세기에 들어서면서 *gegenüber*가 점차 전치사로 쓰이게 되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gegenüber*의 위치가 고정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4.3 합성 부치사

합성 부치사는 독일어 정서법 상 정해져 있으며, 띄어쓰기가 불가한 협착 합성 부치사인 *anhand, anstatt, infolge, inmitten, zufolge, zuliebe*와 부치사와 명사 사이에 띄어쓰기가 가능한 결합적 합성 부치사인 *anstelle/an Stelle; aufgrund/auf Grund; aufseiten/auf Seiten; mithilfe/mit Hilfe; vonseiten/von Seiten; zugunsten/zu Gunsten; zulasten/zu Lasten; zuungunsten/zu Ungunsten*로 구분된다. 이 유형에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문법화의 기제로는 재분석과 유추가 있다.

합성 부치사들 중 가장 오랜 쓰임을 보이는 것은 *anstatt*이다. *infolge*가 Duden의 1880년 판 "독일어 정서법"에 등재되었을 때, *anstatt*는 이미 아래 예문처럼 17세기 문헌에서부터 협착된 형태와

[58] 각 코퍼스에서 함수식 "gegenüber with $p=APPO" "gegenüber with $p=APPR"을 입력하여 나온 토큰(Token)의 수를 비교하였으며, 결과값으로 도출된 토큰의 수는 다음과 같다.
[DK] APPO: 3968; APPR: 25076 / [DK21] APPO: 210; APPR:2703

단어결합의 형태가 공존하였다.

(29) Rollenhagen, Gabriel: Vier Bücher Wunderbarlicher biß daher vnerhörter/ vnd vngleublicher Jndianischer reysen. Magdeburg, 1603.

a. Für dem geseß ist jhnen ein grosser Kohlstrauch/ *anstat eines Schwantzes* heraus gewachsen/ der allezeit grün bleibet/ vnd wenn einer gleich hinderrück fiele/ nicht etzwey bricht.

b. Diß sein grosse Vogel/ die *an stat der Federn* lauter Kohlbletter haben.

(30)의 예문들을 통해 부치사 *anstatt*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초기에는 명사 *Statt*가 2격 명사구의 수식을 받는 (30a)와 (30b)의 구조가 있었다. 그러다 (30b)의 *an statt*가 하나의 단위처럼 재분석되었고, 이후 협착을 거쳐 (30c)의 *anstat*의 형태가 쓰였다. 그리 고 신이나 왕 등 인물에 한정되어 있던 명사구가 사물, 혹은 (30d)의 *des Gespräches*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까지 유추되어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치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anstatt*의 발달과정은 (31)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vgl. 구명철 2015: 130f.).

(30) a. Jch stehe hie *an Gottes statt*/ vnnd mache Wasser zu Wein.
(Melander, Otto: Joco-seria Das ist Schimpff vnd Ernst. Bd. 1. Lich, 1605.)

b. Was der Prophet Aggaeus vor disem *an statt Gottes* dem sündigen Volck vorgeworffen/ (…).
(Clara, Abraham a Sancta: Judas Der Ertz-Schelm. Bd. 1. Salzburg, 1686.)

c. so hat ihn dieser meister der lügen, den er *anstat Gottes* zum lehrer annimt, noch weiter geführet.
(Benner, Johann Hermann: Die Herrnhuterey in ihrer Schalkheit. Bd. 2. Gießen, 1747.)

d. *Anstatt des Gespräches* ziehen viele erst einmal die "Säuberung" ihrer Kaderakten vor, weil sie Angst haben, von nun an in ihrer wissenschaftlichen Entwicklung gehemmt zu werden. (die tageszeitung, 20.04.1990, S. 5)

(31) a. an [$NP_{Gen.[Person]}$ Statt] / an [Statt $NP_{Gen.[Person]}$]
b. [an statt] $NP_{Gen.\ [Person]}$
c. anstatt $NP_{Gen.\ [Person]}$
d. anstatt $NP_{Gen.}$

이렇게 재분석이 일어나 단어결합으로 존재했던 것이 하나의 단어로 되는 것을 Lehmann/Stolz(1992: 32)은 단일어화라 하였다. 2.1.4장에서 언급하였듯, Lehmann(2015: 160)은 단순한 어휘적 협착은 문법화 현상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호들 사이에 문법적 관계가 있어야만 기호들 간의 유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위 (31)에 제시된 *'an Statt > anstatt'*의 단일어화는 *an*과 *Statt*가 본래 문법적 지배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문법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4.3.1 협착 합성 부치사

협착 합성 부치사에 속하는 부치사로는 <표 3>의 '그룹 i)'에 나온 것들이 있으며, 다시 상기시켜 보자면 *anhand, anstatt, infolge, inmitten, zufolge, zuliebe*이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분석해 볼 대상은 *anstatt*이다.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anstatt*는 *an Statt*에 기원을 두어 명사 *Statt*의 '자리, 장소'라는 의미가 탈색되는 탈의미화를 겪음으로써 '~대신'의 의미를 가지는 부치사가 되었다. 또한 *anstatt*는 *an*이 탈락한 형태인 *statt*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anstatt*의 경우 음운론적 축소 현상도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59] 따라서 *anstatt*의 온전성은 음운과 의미 두 측면에서 모두 줄어들었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anstatt*의 범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anstatt*의 초기 단계인 (30a)의 *an Gottes statt*와 문법화가 이뤄진 시기의 (30d)의 *anstatt des Gesprächs* 모두 문장 내의 부사어로 나타나는 부치사구이기 때문이다. 즉 이전 구조인 '*an* $NP_{Gen.}$ *Statt*'와 이것이 문법화한 현대 구조 '*anstatt* $NP_{Gen.}$' 모두 구조적 범위가 부치사구로 동일한 것이다.

[59] Hopper/Traugott(2003: 65f.)은 이 현상을 필수적인 기호였던 것이 오히려 탈락하고 선택적인 기호만 남아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어의 부정표현 *ne ... pas*를 언급하였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anstatt*의 계열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anstatt*는 명사 2격이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3격 명사와 쓰일 수 있다는 Duden의 설명이 있지만 실제 코퍼스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anstatt*는 지속적으로 쓰이지만, 부치사보다는 문장 층위의 비정형 동사구조를 이끄는 접속사로서의 용례를 더 많이 보인다(vgl. Wich-Reif 2010: 290).[60] 이는 곧 *anstatt*의 독일어 부치사로서의 계열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anstatt*는 물론 모든 협착 합성 부치사들의 결합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31)에서 제시된 *anstatt*의 재분석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협착 합성 부치사들은 기본 부치사와 각자의 기반 명사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협착을 이루었다.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anstatt*는 의무성을 일부 띤다. 명사가 문장 내에서 지시되는 다른 대상과 '대체관계'라는 의미자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치사가 선택되어야 하지만 *anstatt*에는 *anstelle*가 대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가능성의 감소, 즉 기호의 의무화는 적은 정도로 실현된다. 끝으로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anstatt*는 명사의 앞쪽에 위치하는 전치사로 위치가 고정되었다.

4.3.2 결합적 합성 부치사

결합적 합성 부치사는 기본 부치사와 명사가 협착을 이뤄 한 단어로 된 형태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협착 합성 부치사와 같지만, 협착이 되지 않은 채 두 단어로 띄어서 쓰이기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유형에는 *anstelle/an Stelle; aufgrund/auf Grund; aufseiten/auf Seiten; mithilfe/mit Hilfe; vonseiten/von Seiten; zugunsten/zu Gunsten; zulasten/zu Lasten; zuungunsten/zu Ungunsten*이 존재하며, 이들의 형성 과정에서 또한 재분석과 유추가 일어났다.

---

[60] 이 사실은 코퍼스 자료가 뒷받침한다. DK와 DK21에서 *anstatt*가 *zu*-부정사 구문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함수식 "anstatt && $p=PTKZU"와 "anstatt && !$p=PTKZU"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각 코퍼스에서 전자는 1150개와 215개, 후자는 1024개와 116개의 토큰이 도출되었다. 후자의 토큰 중에는 부사로 쓰이는 *anstatt*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anstatt*는 접속사로 쓰이는 용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anstatt*의 형성과정과 비슷하게 *aufgrund*도 *auf (dem) Grund*에서 비롯되었다. *auf dem Grund*는 (32a)에서처럼 '(~의) 바닥 위에'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지녔다가 *Grund*가 13세를 기점으로 (32b)처럼 '기초(Fundament)'라는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전치사구 *auf dem Grund*에서 관사 *dem*이 탈락하여 (32c)처럼 쓰이고, 사용 빈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협착을 통해 *aufgrund*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32d)). 한편, *aufgrund*는 *anstatt*와 비교하면 최근 형성되어[61] 아직 *auf Grund*와 공존한다.

(32) a. Die Trumai sind Wassertiere, weil sie *auf dem Grund des Flusses* schlafen.
(Steinen, Karl von den: Unter den Naturvölkern Zentral-Brasiliens. Berlin, 1894.)

b. *auf dem grunde des parlamentarischen lebens* ... bildeten sich neue anschauungen. (Ranke s. w. 31, 83)

c. Die Maßnahme erfolgte *auf Grund eines Beschlusses der Regierung*. (Archiv der Gegenwart, Bd. 32, 02.11.1962)

d. *Aufgrund dieser vorläufigen Festsetzung* wären 76,6 Millionen Mark auf die CDU entfallen.
(Die Zeit, 20.01.2000, Nr. 4)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aufgrund*는 *Grund*가 가지고 있던 '바닥, 기반'이라는 뜻이 13세기를 기점으로 '기초(Fundament)'라는 은유적 의미로 쓰이면서 의미탈색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 원래는 *Gewässer*나 *Meer* 등의 단어와 결합하다가 점차 *Verhältnisse*처럼 추상적인 개념과도 결합하는 등 의미의 확장이 일어났다. 따라서 *aufgrund*는 의미적 온전성을 상실하였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anstat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ufgrund* 또한 원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적 범위를 유지한다. 협착이 일어나지 않은 *auf Grund*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서 명사구를 지배하여 부치사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협착을 거친 *aufgrund*도 마찬가지이다.

---

[61] DTK에서 *aufgrund*를 시대별 오름차순으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1895년의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오며, Lehmann/Stolz(1992)에 따르면 Duden의 1967년판 정서법에 처음 *aufgrund*가 등재되었다고 한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aufgrund*의 계열성은 작은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aufgrund*가 가지는 전형적인 부치사의 특성, 즉 하나의 단어로 문장 내에서 문두가 아닌 위치에서는 소문자로 쓰인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aufgrund*가 2격을 지배하고 단일 어휘소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치사 계열의 동질성을 따르지 않아 계열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aufgrund*는 협착을 이뤘다는 점에서 결합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auf Grund*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는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사용 빈도를 참고하면 *aufgrund*가 *auf Grund*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으며,[62] 이는 곧 부치사의 결합성이 높아지는 유착 과정이 현재진행형임을 가리킨다.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aufgrund*는 여타 다른 합성 부치사들과 다르지 않게 선택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aufgrund*가 가지는 의미자질 '근거'는 *wegen, durch, aus*도 동일하게 가지며 이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aufgrund*는 위치가 보족어의 앞으로 고정되었다.

4.4 전치사적 단어결합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전치사 + (관사) + 명사 + (전치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으로, *im Hinblick auf, in Bezug auf, im Laufe, im Wege* 등이 있다.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일반적인 자유결합(z. B. *am Ende, im Moment*)과 달리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결합은 기본 부치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과 기본 부치사와의 등위 구조에서 병렬적으로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vgl. 신용민 2018). 이들 개별 결합체가 부치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법화의 기제는 환유이다.

앞서 2.2.3장에서 환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im Vorfeld*의 예시를

[62] *aufgrund*와 *auf Grund*의 사용 빈도를 DK와 DK21 코퍼스에서 알아보았다. 각 코퍼스에서 *aufgrund*는 2672와 1129개의 토큰이, *auf Grund*의 경우 11607과 298개의 토큰이 검색되었다. DK와 DK21는 각자가 담고 있는 텍스트의 시간대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auf Grund*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정도가 *aufgrund*의 그것보다 확연히 크다.

들었는데, 이 결합체에서는 '전방'이라는 공간적 지향성의 인접성을 매개로 하여 어느 시점의 '앞'이라는 시간적 방향성으로의 전이가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결합체 *im Zuge*는 '기차 안에서'라는 축어적 의미를 가진다. 이 의미를 그대로 공간적 맥락에서 적용해 보면, *im Zuge*는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일상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혹은 그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성'과 연결되어 아래의 예문처럼 *im Zuge*는 '~의 과정 중에, ~동안'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적 단어결합으로 쓰이게 된다.

(33) Am Ende des Kapitels Starke Demokratie heißt es im schwarzblauen Regierungspakt, die neue Bundesregierung werde sich "um sachgerechte Lösungen in den Fragen aller *im Zuge des Zweiten Weltkriegs* zur Zwangsarbeit gezwungenen Personen" bemühen. (Die Zeit, 10.02.2000, Nr. 7)

한편 환유 이외에도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형성 과정에서 유추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결합체 *im Wege*는 자유결합으로 실현될 수 없는 형태이며, 일반적으로는 *auf dem Wege*로 표현될 것이다. 그럼에도 *im Wege*의 형태로 부치사의 기능을 얻게 된 것은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앞에 나오는 전치사의 대부분이 in이라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im Wege*는 '전치사 + 명사'가 부치사의 기능을 얻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에 유추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다(vgl. Lehmann 1991: 500ff.).

기호의 온전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의미적 온전성을 상실하였지만, 어느 정도 본래의 의미를 보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합성 부치사 *anstatt*에서 '장소'를 의미하는 *Statt*가 그 의미를 상당히 잃은 채 부치사로 쓰이는 것과 달리,[63]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 예를 들어 *in Bezug auf*가 '~과 관련 하여'라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Bezug*의 어원인 동사 *beziehen*의 의미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beziehen*이 *auf*로 동반되는 보족어를 가지는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im Zuge*나 *im Vorfeld* 등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를 포함하는

[63] 본고 4.2.1장 참고.

단어결합에서는 해당 명사가 지시체로서 가졌던 의미자질은 잃었기 때문에 탈의미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그 자체로 구 층위이므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해도 전치사구라는 사실은 불변한다. 따라서 결합체의 구조적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기호의 계열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의 계열성은 조금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상술했듯이 이 결합체는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고, 다른 대상을 지배하며 다른 부치사들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부치사들과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결합체가 명사구를 보족어로 삼을 때, 2격 명사구 이외에는 결합체 내 명사의 어원과 관련된 전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밖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부치사 계열 내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기호의 결합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구의 형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합성은 낮다. 다만, 결합체의 내적 구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의 결합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결합은 *im Herbst, in nächsten Herbst*처럼 중간에 형용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in dem Zug*나 *im Bezug auf*는 각각 *im Zuge*와 *in Bezug auf*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전치사로 쓰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법적 결합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호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모든 문맥에서 자유롭게 기본 부치사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기호가 가지는 "의미 영역이 교집합을 이룰 때" 대체될 수 있다(vgl. 신용민 2018: 90f.). 따라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계열적 유동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호의 위치자유도 측면에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족어의 앞쪽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문장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하다.

지금까지 <표 5>에 제시된 부치사 분류에 따라 각 유형에서 일어나는 문법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래 4.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의 독일어 부치사 유형별 문법화의 진행 정도를 하나의 표로 나타냄으로써, 독일어 부치사들에서 관찰되는 문법화 양상을 축약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4.5 부치사의 종합적 문법화 정도

4.5장의 논의는 Lehmann(2015)의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그 순서는 4.1장부터 4.4장까지 부치사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개별 부치사의 문법화의 정도를 분석할 때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따른다. 문법화의 진행 과정에서 매개변항의 값이 달라지는 과정은 앞서 <표 2>로 정리해 놓았지만, 다시 상기시켜 보도록 하자.

기호의 문법성은 기호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특성, 즉 자율성에 반비례하며, 자율성은 무게, 응집성, 유동성 세 가지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 기호의 무게에 영향을 끼치는 온전성과 구조적 범위는 각각 '축소'와 '축약'을 거쳐 감소하는 반면, 기호의 응집성을 결정짓는 계열성과 결합성은 각각 '계열화'와 '유착'을 통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기호의 유동성은 선택가능성과 위치자유도에 따라 변하며, 이들은 각각 '의무화'와 '고정'을 통해 감소한다.

4.5.1 기호의 무게의 변화

기호의 온전성이 감소하는 '축소'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부치사들의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의미적 온전성이 감소하는 탈의미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PO-P에서는 자신을 수반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추측이 가능할 뿐, 의미자질이 아예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탈의미화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파생 부치사들은 각자의 어원이 가지고 있던 어휘적인 의미는 문법화가 진행되면서 닳게 되었고, 더 많은 대상과 결합하여 쓰이는 부치사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탈의미화 정도도 매우 높지만, PO-P처럼 다른 단어의 어휘적 의미에 의존적일 만큼 의미자질이 없지는 않다.

협착 합성 부치사인 *anstatt*에서는 탈의미화와 더불어 음운론적 축소 또한 일어났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anstatt*의 문법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PO-P나 파생 부치사에서는 음운론적 축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하여 *anstatt*가 이 두 부류보다 더 문법화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 두 부류는 단일 부치사, 즉 어휘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단어들이므로 원래 구 단위에서 출발한

*anstatt*의 *an*처럼 음운(형태)이 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anstatt*에서 *an*이 탈락하지 않은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다는 점도 *anstatt*의 단일 부치사보다 낮은 문법성을 가리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동일한 합성 부치사에 속하는 *aufgrund*의 경우 탈의미화만 거치고 음운론적 축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anstatt*와 비교하면, *aufgrund*는 *auf Grund*의 형태로도 쓰이는데, 이는 곧 *anstatt*보다 낮은 탈의미화 정도를 의미한다. Szczepaniak(2018: 93f.)에 따르면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부치사의 기능을 얻어가면서 점차 기본 부치사가 보이는 문법적 양상을 따르게 되는데, 그 말인 즉슨 *aufgrund/auf Grund*는 *anstatt*보다는 어휘성을 더 갖는다는 것이다. *aufgrund*와 *auf Grund*가 대등하게 대체될 수 있다면, *auf Grund*의 어휘성도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어휘성이 다른 부치사보다는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탈의미화가 일부 이뤄졌음에도 그 정도는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호의 구조적 범위가 감소하는 '축약'의 과정은 PO-P와 *gegenüber*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PO-P는 자신이 이끄는 부치사구가 문장 내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문장에서 동사로 줄어들었고, *gegenüber* 또한 전치사적 목적어와 비슷하게 구조적 범위가 문장 층위에서 구 층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범위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wegen*과 *während*의 구조적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들은 각각 전치사의 구조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명사, 명사를 부가적으로 수식해 주는 동사의 분사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명사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치사로 문법화하면서 명사구를 보족어 로 삼는 전치사구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합성 부치사 *anstatt*와 *aufgrund*, 그리고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본래부터 구에서 유래하였고 당시에도 부사어로 쓰였던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구조적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6가지 매개변항 중에서 '구조적 범위'로는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1장의 논의 내용은 아래 <표 6>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4.5장에 등장하는 표에서 사용되는 기호 'O', '△', 'X'는 부치사가 문법화의 진행 과정에서 매개변항의 값이 변하는 과정을 따르는 정도를 나타내며, 언급 순서대로 그 정도가 높다. 예를 들어, PO-P의 온전성은 매우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문법화에 따른 온전성의 변화인 '축소'를 높은 정도로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O'로 표시하였다. 반대로 전치사적 단어결합이 '축소'의 과정을 따른 정도는 적기 때문에 'X'로 표기하였다.

무게의 변화	기본 부치사	파생 부치사			합성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
매개변항 (과정)	PO-P	wegen	während	gegen-über	anstatt	aufgrund/ auf Grund	
온전성 (축소)	O	O	O	O	O	△	X
구조적 범위 (축약)	O	N/A	N/A	O	N/A	N/A	N/A

<표 6> 무게의 매개변항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64]

4.5.2 기호의 응집성의 변화

기호의 계열성이 증가하는 '계열화'의 측면에서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양상을 바라보도록 하자. 우선, PO-P의 경우 PO-P 계열의 크기, 즉 PO-P로 나올 수 있는 기본 부치사의 수가 줄어듦으로써 계열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 계열에 속하는 원소들 모두가 부치사 로서의 특성에 더해 동사의 보족어를 이끄는 완전한 문법적 단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은 이들 부치사의 문법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계열화라 함은 계열 내에서 전형적으로 공유되는 특징들을 더 많은 원소들이 공유하게 되는 과정, 즉 계열 내의 동질성이 높아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치사와 관련한 계열화는 개별 부치사가 전형적인 부치사, 즉 기본 부치사의 실현 양상과 비슷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점을 고려하여 다른 유형의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wegen*과 *während*는 처음 부치사로서의 기능을 얻게 되었을 때 2격을 지배했는데, 이는 각자의 어원과 연관이 있다. 그러다 둘 다 구어체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3격과 쓰이기도 하면서 점차

[64] 위 표에서 N/A는 영어 'Not Applicable'의 약어로, 기호가 문법화함에 따라서 매개변항의 값이 변하는 과정이 해당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wegen*은 문법화를 거쳤지만 구조적 범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남으로써 '축약'의 과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N/A로 표시했다.

기본 부치사의 특징을 가지게 되어 계열성은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파생 부치사인 *gegenüber*는 후치사로 쓰이다가 전치사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계열성의 증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후치사라는 전형적인 부치사의 특징과 다른 용례가 있기 때문에 증가폭은 적다. 또한 *anstatt*와 *aufgrund*의 경우 부치사의 형태와 서법 측면에서의 계열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은유 및 환유를 통해 형태가 고정됨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치사의 기능을 얻게 되어 가장 낮은 계열성을 보인다. Lehmann/Stolz(1992: 16)는 보족어와의 위치나 기호의 형태적인 면은 문법성을 판단하는 데 부수적인 역할을 하며, 격 지배나 융합 같은 기준이 중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했다. 즉, 합성 부치사와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파생 부치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계열화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호의 결합성이 증가하는 '유착'의 측면에서 보면, PO-P로 유도되는 전치사적 목적어는 동사의 논항으로서 동사와의 긴밀도가 높다. 다음으로 부치사구의 보족어로 존재하던 명사였던 *wegen*과 명사를 부가적으로 수식하던 동사 분사였던 *während*의 경우 의미적으로 수식을 받거나 수식하는 기호에 그쳤다. 하지만 부치사로의 문법화를 겪으면서 의미적 긴밀도보다 통사적 긴밀도가 높아졌고, 그럼으로써 보족어 없이는 단독으로 나오지 못하는 기능어로 변하였다. *gegenüber*, *anstatt*, *aufgrund*는 모두 부치사로 발달하면서 형태적으로 협착을 거쳐 긴밀도가 높아졌지만, *aufgrund*는 *auf Grund* 로도 쓰이기 때문에 긴밀도는 비교적 낮다. 전치사적 단어결합은 결합체의 구조가 점차 굳어져 구조적 확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결합성이 증가했지만, 유착의 가장 기본 단계인 병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증가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4.5.2장의 논의 내용은 아래 <표 7>로 정리할 수 있다.

응집성의 변화	기본 부치사	파생 부치사			합성 부치사		
매개변항 (과정)	PO-P	wegen	während	gegen-über	anstatt	aufgrund/ auf Grund	전치사적 단어결합
계열성 (계열화)	O	O	△	△	X	X	X
결합성 (유착)	O	O	O	O	O	△	X

<표 7> 응집성의 매개변항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

4.5.3 기호의 유동성의 변화

기호의 선택가능성이 감소하는 '의무화'의 측면에서 보면, 독일어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절이나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가 아니라 명사구의 문장 내에서의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치사를 선택해야 하며, 이는 곧 초계열적 유동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해당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부치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성도 부치사들이 공유하고 있다. PO-P는 선택에 있어서 이 공통점보다 훨씬 구속적인 제약을 받는다. 특정 동사마다 요구하는 부치사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이에 미루어 보아 PO-P는 부치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의무성을 지닌다. PO-P 이외에 언급한 다른 부치사들은 부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성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각 부치사들마다 계열 내에 대체 가능한 다른 원소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기본 부치사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34)).

(34) Diewald 1994: 69

a. *Aufgrund ihres großen Einflusses* konnte sie viele Sponsoren gewinnen.

b. *Mit ihrem großen Einfluß* konnte sie viele Sponsoren gewinnen.

마지막으로 기호의 위치자유도가 감소하는 '고정'의 측면에서 보면,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부치사들은 위치가 보족어의 앞, 혹은 뒤로 고정이 된다. *wegen*이나 *gegenüber*의 경우에는 보족어의 앞과 뒤 모두에 위치할 수 있지만, *wegen*은 거의 전치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65] *gegenüber*는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전치사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66] 두 부치사 모두 전치사로 고정이 되어 가는 과정

[65] DK와 DK21 코퍼스에 함수식 "wegen with $p=APPR"과 "wegen with $p=APPO"를 검색하여 *wegen*의 위치별 사용 빈도를 알아보았다. 각 함수식에 대해 DK에서는 29297개와 251개, DK21에서는 3464개와 17개의 토큰이 도출되어 *wegen*이 후치사로 쓰이는 비중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66] *wegen*과 마찬가지로 두 코퍼스에 함수식 "gegenüber with $p=APPR"과 "gegenüber with $p=APPO"을 사용하여 *gegenüber*의 위치별 사용 빈도를 알아보았다. 각 함수식에 대해 DK에서는 25076개와 3968개, DK21에서는

의 끝으로 가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고정이 거의 진행된 사례로 판단 가능하다.

4.5.3장의 논의 내용은 아래 <표 8>로 정리할 수 있다.

유동성의 변화	기본 부치사	파생 부치사			합성 부치사		전치사적 단어결합
매개변항 (과정)	PO-P	wegen	während	gegen-über	anstatt	aufgrund/ auf Grund	
선택가능성 (의무화)	O	X	X	X	X	X	X
위치자유도 (고정)	O	O	O	O	O	O	O

<표 8> 유동성의 매개변항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

지금까지 독일어 부치사들이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법성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대하여 기호의 자율성을 판단하는 기호의 특성과 그 매개변항에 따라 판단해 보았다. 4.5.1장부터 4.5.3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종합해 보면 아래 <표 9>과 같다.

부치사의 분류		문법화의 매개변항 (변화 과정)						소계	총
		기호의 무게		기호의 응집성		기호의 유동성			
부치사 유형	개별 부치사	온전성 (축소)	구조적 범위 (축약)	계열성 (계열화)	결합성 (유착)	선택 가능성 (의무화)	위치 자유도 (고정)		
기본 부치사 (PO-P)		O	O	O	O	O	O	O	O
파생 부치사	wegen	O	N/A	O	O	X	O	O	O
	während	O	N/A	△	O	X	O	△	
	gegenüber	O	O	△	O	X	O	O	
합성 부치사	anstatt	O	N/A	X	O	X	O	△	△
	aufgrund / auf Grund	△	N/A	X	△	X	O	△	
전치사적 단어결합		X	N/A	X	X	X	O	X	X

<표 9> 문법화의 매개변항에 따른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

위 <표 9>에 제시된 것 중 구조적 범위는 기본 부치사(PO-P)와

2703개와 210개가 도출되어 *gegenüber*가 후치사로 쓰이는 비중은 *wegen*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비중은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형용사 및 부사 파생 부치사(*gegenüber*)를 제외한 다른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활용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따른 문법성의 판별 결과는 제외하였다. 이후 나머지 매개변항의 값이 변한 정도를 기준삼아 부치사들의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여 그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아래 (35)와 같다.

(35) PO-P > *wegen* > *während* = *gegenüber*
> *anstatt* > *aufgrund*/*auf Grund* > 전치사적 단어결합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Lehmann(2015)이 제시한 문법화의 6가지 매개변항과 문법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인지적 기제를 활용하여 독일어의 다양한 부치사에서 일어나는 문법화의 양상과 문법화가 일어난 정도를 알아보고, 서로 비교해 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독일어 부치사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류하였고, 각 유형마다 그들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개별 부치사를 코퍼스 검색을 통해 선정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위한 준비를 갖춘 후 4장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4.5장에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아내었다.

1. Lehmann(2015)이 제시한 문법화의 6가지 매개변항을 활용하여 PO-P가 이끄는 전치사적 목적어에 대한 문법화 정도를 분석했을 때, 전치사적 목적어는 각 매개변항의 값이 더 강한 문법성으로 변하는 모든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2. <표 9>의 결과로 얻은 (35)와 앞서 <표 5>에 제시된 독일어 부치사들의 형태론적 분류체계를 비교해 보면, 어휘소의 개수가 적고, 조어과정을 덜 겪은 것일수록 문법화의 정도가 크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번의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다. 기본 부치사가 이미 부치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법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실인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법성을 띠는 현상인 PO-P는 비슷하거나 더한 수준의 문법화 정도를 보이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문법화의 매개변항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분석을 4장에서 진행한 결과, 실제로 PO-P는 일반적인 기본 부치사보다 한층 더 나아간 문법화 정도를 보였다. 이는 전치사적 목적어가 가지는 논항으로서의 지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논항으로서 전치사적 목적어는 부가적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부치사구보다 문장 내에서의 쓰임에 있어 제약을 가지며, 특정 동사의 사용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어휘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또한 2번은 기호가 가지는 형태 및 조어 측면에서의 특징이 기호의 문법화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Lehmann(1991: 502)은 기호가 문법화할 때 어휘화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두 현상이 맞물려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은 결국 어휘부와 문법 두 영역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2번의 내용은 부치사의 형태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 즉 문법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고, 이는 Lehmann이 말한 문법화와 어휘화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위 두 가지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독일어 부치사의 전형이 기본 부치사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독일어 부치사를 유형화했을 때 각 유형을 대표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본고에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개별 부치사들이 쓰이는 사용 빈도를 대표성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외에도 더 나은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에 기반하여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추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4장에서 Lehmann의 매개변항을 기준삼아 분석을 진행할 때, '구조적 범위'로는 독일어 부치사의 문법성 판단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wegen*과 *während*는 각각 명사와 동사의 분사형에서 부치사로 문법화하면서 자신의 구조적 범위를 넓혔다. 심지어 *während*는 이후 더 문법화를 거쳐 접속사로 변하게 되면서 '명사 > 명사구 > 절'로 한층 더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문법화의 과정에서 구조적 범위가 늘어나는 독일어의 예시에는 dass절의 발달과 부치사 *anstatt*와 *statt*가 *zu* 부정사를 이끄는 접속사로 발달하는 것이 있다.

Diewald(1994: 22f., 118f.)는 이 매개변항 '구조적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während*의 예시를 들었다. Diewald에 따르면 *während*가 부치사일 때는 '동시성'을 나타내다가 접속사로 쓰일 시에는 '반대, 대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화함축(konversationelle Implikatur)이라는 화용적 및 인지적 기제가 작용한 결과이다. 즉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사건은 곧 인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앞서 2.2.3장에서 언급한 Heine et al.(1991: 48)이 제시한 개념 영역의 추상성 위계에서 '시간 > 질'의 이동과 일치한다.

한편 전치사적 목적어와 함께 다른 독일어 부치사들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고에서는 전치사적 목적어의 내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1장에서 기본 부치사가 PO-P로 문법화할 때 환유가 기여를 했을 것이라 가정했다. 추후 이러한 인지적

기제가 전치사적 목적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는가의 여부 등 관련 논의를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봄직 해 보인다.

일례로, 기본 부치사는 구명철(2015: 205ff.)이 제시한 인지적 공간의 위치와 이동으로의 분류, 그리고 언어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역으로 간주되는 공동격(Komitativ)과 수혜자(Benefaktiv)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부치사의 공간과 비공간의 분류에 따라서 전치사적 목적어가 어떻게 나뉘는지, 혹은 그 분류가 전치사적 목적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문법화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구성문법(Konstruktionsgrammatik)의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구명철(2004): 소유관계와 존재동사: 존재동사에 의한 소유관계의 표현. 독어교육 29, 173-195.

구명철(2012): 장소전치사 *von*의 은유적 의미와 2격 대체기능. 독일문학 123, 23-44.

구명철(2015): 『독일어 인지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류수린(2007): 비정형동사의 부치사로의 문법화와 공시적 격 지배 변이현상: 독일어와 한국어 코퍼스기반 연구. 독어학 16, 71-90.

신용민(2018): 어휘화와 문법화의 관점에서 본 독일어 복합부치사의 형성. 언어와 언어학 81, 75-104.

이성하(2015):『문법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역락.

Aarts, B.(2007): *Syntactic Gradience: The Nature of Grammatical Indeterminan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nttila, R.(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Bisang, W.(2017): "Grammaticalization".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9384655.013.103

Bußmann, H.(Hrsg.)(2008)[4]: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Kröner.

Braunmüller, K.(1982): *Syntaxtypologische Studien zum Germanischen*. Tübingen: Narr. [Habilitationsschrift]

Campbell, L./Janda, R.(2001): “Introduction: conceptions of grammaticalization and their problems”. In: *Language Sciences* 23, 93-112.

Di Meola, C.(1994): *Die Grammatikalisierung deutscher Präpositionen*.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

Diewald, G.(1997): *Grammatikalisierung: Eine Einführung in Sein und Werden grammatischer Formen*. Tübingen: Niemeyer(Germanistische Arbeitshefte 36).

Drosdowski, G. et al.(1986)[19]: *Duden.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 und der Fremdwörter*. Mannheim usw.: Dudenverlag (Der Duden in 10 Bänden, Bd. 1). Frühere Auflagen: 1: 1880, 3: 1967.

Dudenverlag(1993)[2]: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acht Bänden*. Mannheim/Leipzig/Wien/Zürich: Dudenverlag.

Dudenredaktion(2020)[28]: *Die deutsche Rechtschreibung*. Berlin: Dudenverlag.
Dürscheid, C.(2012)[6]: *Syntax: Grundlagen und Theorien*. Stuttgart: UTB.
Eisenberg, P.(2013)[4]: *Grundriss der deutschen Grammatik. Band 2: Der Satz*. Stuttgart/Weimar: J. B. Metzler.
Gabelentz, G. v. d.(1901)[2]: *Die Sprachwissenschaft: Ihre Aufgaben, Methoden und Bisherigen Ergebnisse*. Leipzig: Weigel Nachfolger.
Givón, T.(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et al.: Academic Press.
Haspelmath, M.(1997): *From space to time: temporal adverbials in the world's languages*. München/Newcastle: Lincom Europa(LINCOM Studies in Theoretical Linguistics 03).
Heine, B./Claudi, U./Hünnemeyer, F.(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Reh, M.(1984): *Grammaticalization and reanalysis in African languages*. Hamburg: H. Buske.
Helbig, G./Buscha, J.(2001)[2]: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Berlin/München/Wien/Zürich/New York: Langenscheidt.
Hinze, C./Köpcke, K.-M.(2011): "Präpositionalobjekt und Präpositionaladverbial: Vom Nutzen der Prototypentheorie für den Grammatikunterricht". In: Köpcke, K.-M./Noack, C.(Hrsg.), *Sprachliche Strukturen thematisieren. Sprachunterricht in Zeiten der Bildungsstandards*, 60-83. Baltmannsweiler: Schneider-Verlag Hohengehren.
Hopper, P. J./Traugott, E. C.(2003)[2]: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mboldt, W. v.(1822): *Über das Entstehen der grammatischen Formen und ihren Einfluß auf die Ideenentwicklung*. Abhandlungen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Reprint: Humboldt 1972, 31-63.
Hundt, M.(2001): "Grammatikalisierungsphänomene bei Präpositionalobjekten in der deutschen Sprache".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9, 167-191.
Kiparsky, P.(1968):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In: *Foundations of Language* 4, 30-57.
Koo, M. C.(2012): " Distributions- bzw. Gebrauchsunterschied zwischen den kausalen Präpositionen *aus* und *vor*". In: 독어학 25, 1-27.
Kuryłowicz, J.(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Diogenes 13(51), 55-71. doi:10.1177/039219216501305105

Lakoff, G./Johnson, M.(2003): *Metaphor we live by(With a new afterwor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Turner, M.(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Langacker, R. W.(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 C.(ed), *Mechanism of Syntactic Change*, 57-139. Austin: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Lehmann, C.(1995): "Synsemantika". In: Jacobs, J. et al.(eds.), *Syntax.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1251-1266. Berlin: W. de Gruyter (Handbücher de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9/II).

Lehmann, C.(2002):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n: Wischer, I./Diewald, G.(eds.):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1-18. Amsterdam/Philadelphia: J. Benjamins(TSL, 49).

Lehmann, C.(2004): "Theory and method in grammaticalizatio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32(2), 152-187.

Lehmann, C.(2015)[3]: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Lehmann, C./Stolz, C.(1992): "Bildung von Adpositionen im Deutschen". In: *Arbeitspapiere des Seminars für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Erfurt* 6. Universität Erfurt.

Lindqvist, C.(1994): *Zur Entstehung von Präpositionen im Deutschen und Schwedischen*. Tübingen: Niemeyer (Linguistische Arbeiten 311).

Lyons, J.(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London/New York/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sumoto, Y.(1988): "From bound grammatical markers to free discourse markers: History of some Japanese connectives". In: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4, 340-351.

Meillet, A.(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In: *Scientia (Rivista di scienza)* 12(26), 384-400.

Pittner, K./Berman, J.(2015)[6]: *Deutsche Syntax: Ein Arbeitsbuch*. Tübingen: Narr Francke Attempto Verlag.

Rhee, S.(2021): *Linguistic Forms at the Border of Lexis and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Adpositions across Languages*. Seoul: Global Contents Publishing.

Saussure, F. de(2001[1916])[3]: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Dt. Übersetzung: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Berlin/New York: de Gruyter(= de Gruyter Studienbuch).

Rhee, S.(2003): “Semantic Changes in Grammaticalization of Postpositionoids from Movement Verbs in Korean”. In: *Second Language Research* 39, 1-20.

Schröder, J.(1990)[2]: *Lexikon deutscher Präpositionen*. Leipzig: Enzyklopädie/Niemeyer.

Szczepaniak, R.(2009): *Grammatikalisierung im Deutschen: Eine Einführung*. Tübingen: Narr Francke Attempto Verlag.

Traugott, E. C.(1980): "Meaning-change in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arkers". In: *Language Science* 2(1), 44-61.

Traugott, E. C./König, E.(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E. C./Heine, B.(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 I.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189-21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Traugott, E. C./Trousdale, G.(2010): "Gradience, gradualness and grammaticalization: How do they intersect?". In: Traugott, E. C./Trousdale, G.(eds.), *Gradience, Gradualness and Grammaticalization*, 19-44. Amsterdam: Benjamins.

Wöllstein, A./Dudenredaktion(2016)[9]: *Band 4. Grammatik: Unentbehrlich für richtiges Deutsch*. Berlin: Dudenverlag.

Zusammenfassung

Zur Klassifikation der Deutschen Adpositionen nach ihrem Grammatikalisierungsgrad

Lee, Yong Jun

Der Prozess, bei dem ein sprachliches Zeichen allmählich eine grammatikalische Funktion erhält, während es seine ursprüngliche lexikalische Bedeutung verliert, wird als Grammatikalisierung bezeichnet. Dieses Phänomen ist auch bei deutschen Adpositionen zu beobachten: Einige Präpositionen, die ursprünglich räumliche Relationen ausdrücken, bekommen eine rein grammatikalische Rolle, die Einleitung von Präpositionsobjekten bestimmter Verben. Diese Studie setzt sich zum Ziel, Aspekte und Grad von Grammatikalisierung bei den verschiedenen deutschen Adpositionen zu analysieren und sie anhand der Ergebnisse einzuordnen.

Der Grammatikalisierungsgrad kann erfasst werden, indem die Grammatizität von Zeichen gewertet wird. Diese Studie verwendet sechs Parameter der Grammatikalisierung, vorgeschlagen von Christian Lehmann, um die Grammatizität zu werten. Die Grammatikalisierung verläuft in verschiedenen Weisen und hier wirken verschiedene Mechanismen. In dieser Studie werden u. a. Reanalyse, Analogie und Metapher bzw. Metonymie verwendet, die häufig repräsentativen kognitiven Mechanismen der Grammatikalisierung zu betrachten sind.

Bevor das Grammatikalisierungsphänomen von Adpositionen analysiert wird, müssen sie zuerst kategorisiert werden. Sie werden basierend auf morphologisch-formativen Merkmalen in Basis-,

abgeleitete und zusammengesetzte Adpositionen, und präpositionale Wortverbindungen klassifiziert. Basisadpositionen werden auf Präpositional-objekte führende Präpositionen (PO-P) beschränkt analysiert. Abgeleitete Adpositionen werden nach den Wortarten, aus denen sie stammen, und zusammengesetzte Adpositionen danach unterteilt, ob sie trennbar sind. Schließlich werden präpositionale Wortverbindungen wegen ihrer niedrigen grammatischen Eigenschaften als ein Typ betrachtet und deshalb nicht unterteilt. Als repräsentative Adpositionen des abgeleiteten und zusammengesetzten Typs werden *wegen, während, gegenüber, anstatt* und *aufgrund* anhand der Verwendungshäufigkeiten aus dem DWDS-Korpus ausgewählt.

Zunächst wird untersucht, welche Mechanismen bei jedem Adpositionstyp hauptsächlich wirken. Bei Basisadpositionen erscheinen Metapher und Metonymie häufig, indem die ursprüngliche räumliche Bedeutung auf verschiedene Bedeutungen übertragen wird, darüber hinaus eine semantische Nachbarschaft mit einem Verb hat und sich zu den PO-P führt. Bei abgeleiteten und zusammengesetzten Adpositionen wird die ursprünglich freie Verbindung als die heutige Form und Funktion reanalysiert, wobei auch Form- und Bedeutungsanalogien zu beobachten sind. Bei präpositionalen Wortverbindungen tritt Metonymie hauptsächlich auf, indem sich die ursprüngliche Bedeutung durch den Kontakt mit anderem konzeptuellem Bereich erweitert, und auch die Analogie ist zu sehen.

Anschließend wird der Grammatikalisierungsgrad der Adpositionen anhand von Grammatikalisierungsparametern untersucht. Im Allgemeinen gilt: Je grammatischer ein Zeichen ist, desto mehr nehmen sein Gewicht und seine Variabilität ab und seine Kohäsion nimmt zu. Als Ergebnis der Analyse stimmt der Wandel der Adpositionen ziemlich mit den Änderungsprozessen der Parameterwerte entsprechend je ihrem Grammatikalisierungsgrad überein. Dennoch wird der strukturelle Skopus in dieser Studie außer Acht gelassen, denn dieser Parameter nimmt meist im Zuge der Grammatikalisierung ab, aber eher erweitert bei allen analysierten

Adpositionen außer PO-P und *gegenüber*.

Abschließend wird anhand der Analyseergebnisse der Grammatikalisierungsgrad von Adpositionen verglichen. PO-P erreichen das höchste Niveau der Grammatikalisierung, indem sie allen Prozessen folgen, durch die Parameterwerte während des Grammatikalisierungsprozess verändern. Unter den abgeleiteten Adpositionen zeigt *wegen*, deren Herkunft ein Substantiv ist, einen Unterschied zu anderen Subtypen durch eine höhere Grammatizität in Bezug auf die Paradigmatizität. Unter den zusammengesetzten Adpositionen zeigt die untrennbare *anstatt* eine relativ höhere Grammatizität als die trennbare *aufgrund* in Bezug auf Integrität und Fügungsenge. Präpositionalen Wortverbindungen haben die niedrigste Grammatizität, weil sie außer der Stellungsfreiheit keiner Änderung der Parameter folgen.

Zusammenfassend ergibt sich aus der Analyse, dass es eine sog. Grammatikalisierungsskala von deutschen Adpositionen in der Reihenfolge von Basis-, abgeleiteten, und zusammengesetzten Adpositionen und präpositionalen Wortverbindungen gibt. Es wird auch festgestellt, dass Unterschiede im Sinne von Grammatikalisierungsgrad auch unter Subtypen abgeleiteter und zusammengesetzter Adpositionen auftreten.

Stichwörter: Grammatikalisierung, Grammatikalisierungsgrad, Grammatikalisierungsparameter, Mechanismen der Grammatikalisierung, Klassifikation der Adpositionen, Präpositionalobjekt

Studentennummer : 2021-20802